

朝鮮時代의 淸州 栗峰驛

민덕식*

-
- I. 머리말
 - II. 율봉역
 - III. 율봉도
 - IV. 맺음말
-

I. 머리말

우선 주제가 되는 율봉역의 栗峰의 연원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알 수가 없다. 혹시 이 일대에 밤나무가 많아 栗峴(밤고개), 율봉이라는 명칭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덕동의 진천과 증평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진천과 증평으로 가는 고개를 밤고개(방고개)라고 불렀다. 이곳 삼거리에 있는 천주교성당 자리는 주변보다 지형이 높아서 이곳 언덕에서 보면 청주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이 곳 언덕이 栗峰일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는 밤고개가 내덕동을 상징하여 밤고개 일대를 밤고개라는 지명으로 넓게 불리어졌듯이, 고려시대 이전에는 율봉이 이 일대의 지명으로 넓게 불리어졌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는 물론 이 곳 삼거리가 당시 驛路로서 교통상 중요한 지점이었기 때문이었을 것

* 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이다.

驛站은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명령 계통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교통시설이었다. 설치목적은 王命 및 긴급한 軍機事項의 전달, 奉命使臣의 왕래에 따른 迎送支持, 進上·貢賦의 운송,¹⁾ 왕래인의 규찰²⁾에 있었다. 조선시대에 충청도에는 좌도에 連原道(충주), 栗峰道(청주), 成歡道(직산), 우도에 金井道(청양), 時興道(온양), 利仁道(공주) 등 6개의 驛道가 있었는데, 울봉역은 울봉도의 本驛인 察訪驛이었다.

울봉역은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주목 관아에서 비교적 외딴 곳인 淸州牧 北州內面 栗峰里에 있던 역이고, 오늘날의 청주시 청원구 울량동 395번지 일원에 있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중리라는 마을이 있던 곳이다. 울봉역이 있던 지형은 背山臨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뒤로는 백화산이 배산을 이루고 있는데, 백화산 줄기는 동남쪽으로 뻗어 올라가 上黨山城³⁾으로 이어진다.⁴⁾ 앞으로는 울량천을 끼고 있는데, 현재 울량천에는 길이 23.0m, 폭 6.9m의 울량교가 놓여 있다. 울량천은 말을 사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이다. 동남쪽으로는 멀리 상당산성이 조망되고, 남쪽으로는 가까이 牛岩山城(唐羨山城)⁵⁾이 위치한다. 개발되기 이전의 옛 중리의 사진이 남아 있어 참고가 된다. 울봉역 자리에는 청주읍성 안에 있던 충청도병마절도사영(兵營)의 관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옮겨져 있다. 1923년에 울량동 300번지로 이전되어 민가로 사용되었는데, 울량동

1) 역참의 轉輸機能에는 진상과 공물 이외에도 官物이나 使臣의 卜物(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진상과 공물 등은 모두 역마를 사용하여 실어나르고 부족하면 소마리로 실어 나르며, 소가 부족하면 남nerg가 이고 지고 하여도 지탱하지 못하여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燕山君日記』 권36, 燕山君 6년 정월 辛巳).

2) 『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정월 乙未.

3) 상당산성은 김유신의 셋째 아들인 金元貞이 仇近 등을 거느리고 쌓았다는 西原述城에 비정된다(『三國史記』 권47 列傳7 裂起傳).

4) 이들 산줄기는 우암산성의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5) 우암산성은 내성에 고려 태조 13년에 외성이 증축된 복합식산성이다(『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13년 8월 ; 『高麗史』 권82 志36 兵2 城堡). 내성은 약 1.4km의 제1곽은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에 축성된 것이고, 제2·3곽은 외성보다 늦은 시기에 축성된 것이라고 한다(청주시·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5, 『청주 우암산성 I』, 154쪽).

일대가 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 2014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 놓은 것이다.⁶⁾ 정면 4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남쪽 담장 밖에는 「察訪金公重△善政碑」(1656년), 「行察訪李公翼年善政碑」(1694년), 「行察訪許公稷永世不忘碑」(1865년), 「行察訪兼外史官金公河璉去思碑」(1895년)가 옮겨져 세워져 있다.

울봉역이 있던 중리유적은 중리마을 중앙부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2008~2009년에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공원으로 꾸며 놓았다.

울봉역은 『栗峰道驛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울봉역에 대한 상세한 상황을 알 수가 없다. 필자는 1978년에 가정으로 다니면서 고미술품을 구입하는 상인이 병조판서를 지낸 사람의 후손가에서 사왔다는 고문서를 청주에서 본 일이 있었는데, 모두가 울봉역 관련 고문서였다. 앞으로 이러한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들을 발굴하여 연구에 활용하여야 하겠다.

한편 옛 도로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半官半民의 성격을 띤 역의 보조 기능을 가진 숙박시설인 院(院宇)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서 역참과 원이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지는 것이 바람직 한데, 청주 일대에서는 아직 원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원은 17세기 초를 전후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18세기에 이르면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원은 별로 없는 실정이었다. 즉 원은 임진왜란이후 점차 소멸되고 店(주막)이 발달하였다.⁷⁾ 이 때문에 원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다. 필자가 1975년에 차령산맥을 조사할 때 진천의 脇吞嶺 아래에 있던 脇吞院을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협탄원의 원집으로 쓰였다고 전해지는 한 채의 매우 오래된 작은 초가집을 본 일이 있었다. 이 일대에서 처음으로 본 옛 원집이었다.

본고에서는 울봉역과 울봉도를 나누어서 서술하려고 한다. 앞으로 서

6) 「淸州 栗陽洞 古家」 안내문.

7) 金鍾憲, 1998, 「朝鮮時代 交通建築으로서의 院宇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17, 105쪽 ; 민덕식, 「朝鮮時代의 板橋 研究-漢陽都城 研究를 위한 일 환으로-」, 2013, 『鄉土서울』 83(서울特別市 市史編纂委員會), 166~172쪽.

술할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분야 전공자분들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II. 울봉역

1. 構造

1) 驛舍

(1) 문헌자료

『李耆徵栗峰道察訪解由文書』(1660년)에는 당시 울봉역의 역민들이 각자의 직임에 따라 사무를 보던 건물인 역사는 모두 89칸이었다고 하였다. 역사는 上道와 下道로 구분되었다. 상도에는 上房 8칸, 미상이 6칸, 창고 3칸, 樓上庫 3칸, 行廊 3칸, 公須廳 5칸, 作廳大門 7칸, 別庫 3칸, 행랑 4칸이고, 하도는 상방 14칸, 누상고 3칸, 下庫 3칸, 공수청대문 14칸, 作廳 4칸, 下館 9칸이 있었다고 하였다.

표 1. 울봉역의 역사 현황(『李耆徵栗峰道察訪解由文書』)

구분	건물명칭	형태	칸수
上道	上房	와가	8
	△△	"	6
	倉庫	"	3
	樓上庫	"	3
	行廊	초가	3
	公須廳	와가	5
	作廳大門	"	7
	別庫	"	3
下道	行廊	"	4
	上房	"	14
	樓上庫	"	3
	下庫	불명	3
	公須廳大門	"	14
	作廳	와가	4
계	下館	불명	9
			89

역사 중에서는 1992년까지 남아 있다가 화재로 소실된 찰방집이라고

전하는 사진이 남아 있다.⁸⁾ 현재 남아 있는 찰방집의 사진 중에서 가장 뚜렷한 사진은 1988년에 김동복씨가 촬영했다는 컬러사진이다.⁹⁾ 이 사진을 보면 정면 4칸, 측면 3칸의 건물에 측면으로 2칸을 덧붙인 정면 4칸, 측면 5칸으로 된 14칸의 ‘ㄴ’자 건물이었다. 규모로는 전술한 하도의 상방 14칸과 같다.

울봉역에는 이상하게도 두 곳에 上房이 있었다. 상방은 본래 관청의 우두머리가 거처하는 방이란 의미인데, 黃山驛은 內東軒과 東軒이, 幽谷驛·安奇驛·松羅驛·昌樂驛·金泉驛·召村驛 등에는 동헌이 있었다.¹⁰⁾

이들 동헌은 찰방의 집무소인 衙舍였다. 울봉역의 상방도 正廳인 동헌과 같은 건물이 아닌가 의심되는데,¹¹⁾ 이와 같은 추측이 옳다고 한다면, 위치로 보아 상도의 상방이 동헌으로 쓰이고, 하도의 상방은 찰방의 관사로 쓰인 것이 아닌가 싶다. 공수청은 公須位田을 관장하던 건물이고, 作廳은 본래 군현행정의 실무기구로 조선 초기에 六房體系가 도입된 아전들의 집무처이며, 임진왜란을 계기로 戶長(아전의 최상위 직임)중심의 邑司에서 작청이 분리된 것인데, 人吏廳·吏廳·衙前廳·星廳·秩廳이라고도 불렀다.¹²⁾ 역참에서는 역의 행정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衙前, 즉 驛吏들이 중앙 胥吏들의 6房體制와 같이 6房 分任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보던 곳이다.¹³⁾ 하도의 下館은 규모도 9칸으로 큰 규모였다. 『湖南驛誌』(1896년)에는 靑巖驛(長城)의 驛舍 모습에 역사로 들어가는 鎭南樓 옆으로 길게 하관(6칸)이 그려져 있다.¹⁴⁾ 하관은 창락역, 안기역처럼 館舍가 아니었나

8) 강민식, 2015, 「흑백사진에 남은 울봉역」, 『청주문화』 30(청주문화원), 75쪽.

9) 『충청리뷰』, 2016년 1월 28일.

10) 『嶺南驛誌』(奎章閣圖書番號 12185).

11) 『大明律』 郵驛條에는 사객이 역사의 正廳上房에 占宿하는 자는 笞 50이라고 하였다.

12) 裴基憲, 1995, 「朝鮮後期 作廳의 運營과 그 性格」, 『啓明史學』 6(啓明史學會), 51~56쪽.

13) 趙炳魯, 2014, 「조선시대 충청지역 交通路와 驛站운영-淸州 『栗峯道察訪解由文書』 및 『栗峯驛事例』를 중심으로-」, 『충북의 옛길』(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 16쪽.

14) 『湖南驛誌』 靑巖道驛誌及事例成冊(奎章閣圖書番號 12190).

추정된다. 이들 驛館은 역을 이용하는 使客들이 유숙하던 곳이었다.¹⁵⁾ 그러나 고위 사객들은 이곳 역관보다는 시설이 비교적 좋은 청주목의 客館(客舍)을 즐겨 이용하였을 것이다.¹⁶⁾

이무튼 울봉역의 역사는 동헌, 공수청, 작청, 館舍, 각종 창고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2) 발굴조사자료

가) 1호 건물지

1호 건물지는 건물지가 밀집되어 있는 중리유적의 동쪽 모서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유구의 남서쪽으로 약 1m 거리에 2호 건물지가 위치하고, 북서쪽으로 약 1m 거리에 3호 건물지의 적심렬이 놓여 있었다. 유구 내부에서 적심 등 건물지의 존재를 확인할 적극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할석을 깔아 지반을 단단히 고르고 다듬은 것으로 보아 건물지에 준하는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구의 규모는 할석이 깔려있는 범위인 길이 12m, 너비 7.5m이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었다. 1호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로 유구의 북동쪽 장변에서 각각 1m와 2m 떨어진 곳에서 2열의 석렬이 유구의 방향과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잔존양상으로 보아 담장으로 판단되는데, 북쪽에 놓여 있는 석렬이 비교적 정연하며 ‘ㄱ’형태로 꺾이는 것이 확인되어 유구 주변에 둘러진 담장의 기초로 판단되었다.

15) 北院은 청주목 관아에서 북쪽으로 7리에 있었는데(『輿地圖書』 淸州牧 驛院), 울봉역과 관련된 院宇로 北州內面 院里에 있었으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내덕동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형상으로 보아 진천로와 청안로의 분기점 부근이 아니었나 싶다. 이곳은 바로 김해로 의 역로에서 울봉역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기도 한다. 주로 진천로나 청안로를 왕래하던 旅客들이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봉역의 역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使客들은 이곳 복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16) 樂生驛(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은 奉命使臣 및公私의 過客과 각 고을의 수령가족 등이 모두 이 역에서 숙박하게 되는데, 이 역이 잔폐되었기 때 문에 사람들이 유숙하지 않고, 모든 공사의 일행들이 전부 果川縣에서 숙박을 하였다. 이 때문에 과천도 폐해를 받아 지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였다(『中宗實錄』 권65, 中宗 24년 5월 甲寅).

유구의 잔존양상이 정형성이 없고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정확한 성격이나, 규모, 구조는 파악할 수 없었고, 건물지의 기초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¹⁷⁾

나) 2호 건물지

2호 건물지는 중리유적의 건물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의 중앙부에 위치한다. 2호 건물지의 북동쪽으로 1m 거리에 1호 건물지가 자리하고, 남쪽으로 약 3.5m 거리에 1호 연못지가 자리한다. 2호 건물지의 북서쪽으로 2호 건물지보다 약 50cm 높은 위치에 6호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어, 2호 건물지의 정확한 범위와 구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유구의 노출상으로 보아 2호 건물지가 폐기된 후에 6호 건물지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2호 건물지의 정확한 범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노출되어 확인되는 양상은 12기의 적심으로 이루어진 정면 4칸, 측면 2칸의 평면 형태가 ‘L’자형 건물지이다. 적심은 원형으로 규모는 지름 약 1~2m였다. 건물지의 장축방향은 북동-남서로 건물지 정면은 남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9.6m, 측면 4.8m였다.¹⁸⁾

다) 3호 건물지

12기의 적심으로 이루어진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장방형 건물지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으로 정면이 남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적심과 적심 사이의 주칸 거리는 정면, 측면 모두 240cm로 균일하고, 건물의 규모는 정면 7.2m, 측면 4.8m였다. 건물지의 기단 기초가 남아 있었다.¹⁹⁾

라) 4호 건물지

8기의 적심으로 이루어진 정면 2칸, 측면 2칸의 정방형으로, 남쪽 모서리의 적심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적심과 적심 사이의 주칸 거리는 2.25m로 균일하며 정면 4.5m, 측면 4.5m였다. 건물지의 기단 기초가 남아

17)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淸州 栗陽洞遺蹟 III』, 1~5쪽.

18)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5~13쪽.

19)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13~14쪽.

있었고, 3호 건물지와 축선을 나란히 하고 있었으며, 같은 높이의 터 위에 조성되어 동시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²⁰⁾

마) 5호 건물지

5호 건물지의 북쪽으로 약 3.5m 거리에 2호 건물지와 3호 건물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5호 건물지의 남쪽 모서리 일부분이 6호 건물지와 중복되어 있었다. 20기의 적심으로 이루어진 정면 4칸, 측면 3칸의 장방형 건물지로 남쪽 모서리의 적심 2기는 유실된 것으로 보이고 18기의 적심이 잔존하였다. 적심의 규모는 지름 약 1.2m이고, 일부는 적심석 위에 초석이 놓여 있었다. 적심과 적심 사이의 주칸 거리는 정면 2.25m, 측면 2.5m로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9m, 측면 7.5m이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었다. 건물지의 기단기초, 출입시설, 보도시설이 남아 있었다. 적심석의 중복과 잔존양상으로 미루어 5호 건물지보다 후대에 조성된 6호 건물지가 5호 건물지의 남쪽 모서리를 훼손하고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²¹⁾

바) 6호 건물지

6호 건물지는 5호 건물지의 남동쪽 모서리와 중복되어 있는데, 적심의 중복과 잔존양상으로 미루어 6호 건물지가 5호 건물지보다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6호 건물지의 동쪽으로 2호 건물지가 자리하는데, 2호 건물지는 6호 건물지와 약 60cm의 높이차를 두고 하부에 자리하고 있어 6호 건물지가 후대에 조성된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8기의 적심으로 구성된 정면 3칸, 측면 1칸 건물로 서쪽 모서리의 적심 1기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적심의 지름은 약 1m이고, 적심 사이의 한 칸의 간격은 모두 2.8m였고, 건물의 규모는 정면 8.4m, 측면 2.8m로, 장축방향은 북동동-남서서였다. 6호 건물지는 서쪽으로 더 연장된 것이나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²²⁾

사) 7호 건물지

20)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14~15쪽.

21)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15~16쪽.

22)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17~24쪽.

7호 건물지의 가장 북쪽 적심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1m 거리에 5호 건물지의 기단석이 자리하고, 남쪽으로 약 70cm 거리에 매우 인접하여 8호 건물지가 있었다. 14기의 적심으로 구성된 정면 5칸, 측면 2칸 건물로 북동쪽으로 열이 맞는 1기의 적심석이 확인되어 북쪽으로 측면 칸이 더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11m, 측면 5m이고, 평면 형태는 ‘ㄱ’자형으로,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다.²³⁾

아) 8호 건물지

8호 건물지의 동쪽으로 약 5m 거리에 1호 연못이 자리하고 있었다. 10기의 적심으로 구성된 정면 4칸, 측면 1칸 건물로 평면은 ‘一’자형이다. 적심칸의 간격이 2.3m로 균일하며,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9.2m, 측면 2.3m이고,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다.²⁴⁾

자) 9호 건물지

9호 건물지의 동쪽으로 약 12m 거리에 2호 연못이 있고, 북동쪽으로 약 17m 거리에 8호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의 구체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적심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바깥쪽으로 면을 맞추어 놓여있는 석렬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할석렬이 여러겹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 기단이 여러 차례 증·개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심이 확인되지 않아 건물지의 구조는 파악할 수 없었고,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건물지의 규모는 정면 16m, 측면 11.2m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다. 건물지 남쪽 모서리에 길이 1m이상의 장대석을 장방형으로 놓고 내부에 납작한 할석을 깔 시설이 맞닿아 있는 것이 확인되어 건물지 출입시설의 하부구조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²⁵⁾

하여튼 동북쪽에 자리 잡은 1호 담장지가 1호 연못지와 1·2호 건물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남서쪽에 자리한 2호 담장지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호 연못지와 9호 건물지와는 별개의 권역을 이루고 있다.

23)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24~25쪽.

24)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26쪽.

25)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27~28쪽.

1호 담장지와 관련된 동북쪽 건물군이 밀집되어 있는 1구역이 중심구역 이고, 2호 담장지와 관련이 있었을 2구역은 부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구역에서는 출입시설과 보도시설을 갖춘 5호 건물지가 중심을 이루고, 2 구역에서는 9호 건물지가 중심을 이룬다. 이들 건물지 중에서 2호 건물지와 6호 건물지는 정면이 동남쪽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서쪽이었다. 8호 건물지는 下館과 관련이 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이와 같은 추측이 옳다고 한다면 靑巖驛처럼 1구역의 출입시설은 이쪽으로 나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들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기와와 백자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출토유물로 보아 15세기 후반이전에서 19세기까지 오랜 동안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²⁶⁾

2) 연못

(1) 문헌자료

徐居正의 ‘울봉역에 題하다’라는 7언시에는²⁷⁾

耿耿銀河月欲低
은하수는 반짝 반짝 달빛은 나지막하고
藕花開盡小樓西
작은 누각 서쪽으로 연꽃은 만발했는데
美人睡起話離別
미인이 자고 일어나 이별 인사 나눌제
鐵笛一聲心轉迷
鐵笛²⁸⁾ 한 소리에 마음이 헛갈리네

이 시를 통해 작은 누각 서쪽으로 연못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미인은 기생을 의미한다. 이들 기생들은 이곳을 지나는 奉命使臣이나 過客들의 접대를 하였으며, 울봉역에 官妓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

26)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97~98쪽.

27) 『四佳集』 四佳詩集 권2 詩類 題栗峰驛.

28) 옛날 隱者나 高士가 이 것대를 잘 붙었다고 한다.

을 보면 관기는 아닌듯하다.

또 서거정의 ‘옛 일을 생각하여 西原의 울봉역에 제하다’라는 7언시에는²⁹⁾

隴麥初胎梅已仁

밭두둑에 보리는 싹트고 매실은 이미 시들었는데

江南行客動傷神

강남에서 온 나그네 마음 절로 상하네

小塘依舊荷花淨

작은 연못은 예나 다름없고 연꽃은 청초하건만

不見當時勸酒人

그때 술 권하던 사람은 볼 수가 없구나

한편 서거정의 『東人詩話』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³⁰⁾

세종 19년에 權寧, 韓明澮,³¹⁾ 李文炯 등 수십 명의 동지가 서원(청주)에서 노닐었는데, 권람은 기생 一枝紅을 사랑하고, 이문형은 銀臺月을 마음속으로 사랑하였다. 몇 년 뒤에 권람과 이문형이 다시 서원에서 노니는데, 일지홍은 이미 세상을 떠나 버렸다. 이에 이문형이 권람의 마음을 헤아려 시 한수를 읊었는데, “지난 무오년에 놀던 일 생각하면, 일지홍의 요염한 자태 선비의 간장 녹였는데. 오늘 다시 오니 감개가 무량하나, 가련하구나 외로운 무덤 인간을 등졌구나.”라고 하였다. 또 19년 뒤에 이문형이 좌승지로서 역마를 타고 서원을 지나게 되었을 때 은대월은 오히려 건강하게 말술(斗酒)과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은근하게 회포를 풀고 즐거움을 극진히 한 다음 헤어졌다. 권람은 이때 정승이 되어 이문형의 말을 듣고 金守濫에게 전하였다. 김수온도 젊은 시절의 일을 말하기를, 젊은 시절에 서원 기생 鳳凰池와 함께 고을 북쪽 울봉역에서 이별을 슬퍼하였다고 하였다. 각각 아래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연못에는 때마침

29) 『四佳集』詩集 補遺3 栗峰驛.

30) 『東人詩話』 卷下.

31) 한명회는 청주 대머리 한씨로 청주에 農莊이 있었다. 그가 정승이 되어 권세를 누릴 때는 농장에 올 때에 진천현감과 울봉도찰방이 境上에서 영접할 정도였다(『成宗實錄』 권201, 成宗 18년 3월 甲午). 이번 모임도 한명회가 주선한 듯하고, 이들은 후일 수양대군의 수족이 되었다.

연꽃이 활짝 피어 있어 소년은 님을 잃고 지도 모르게 연못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하였다. 7년 뒤에 다시 서원에 이르러서 보니 봉황지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두 해째였다.³²⁾ 감상에 젖어 驛樓에서 시 한수를 읊으니, “발두둑에 보리는 싹트고 매실은 이미 시들었는데, 강남에서 온 나그네 마음 절로 상하네. 작은 연못은 예나 다름없고 연꽃은 청초하건만, 그때 술 권하던 사람은 볼 수가 없구나.”라고 하였다. 권람이 웃으며 말하기를 “서원은 본래 미인이 많은 곳인데, 지금 이문형이 역마를 타고 고을로 달려가자 반갑게 앞을 가로막는 사람을 보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나와 그대가 비록 서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시에서 한탄한 그대로일 것이다. 이문형과 같은 한이 어찌 이루어지랴. 옛 사람이 말한 ‘旌旗를 앞세우고 지나가건만 누각 위에는 이 행차 바라보는 이 없네.’라는 시구는 나와 그대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뼉을 치고 크게 웃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김수온은 영동 사람으로 慧覺尊者 信眉의 아우인데,³³⁾ 세종 말년에 신미와 함께 세종에게 佛心을 심어준 사람이었다.³⁴⁾ 문제는 서거정의 『東人詩話』로 보면 전술한 서거정의 「懷舊題西原栗峰驛」이라는 시는 서거정의 시가 아니고 김수온의 시라는 점이다. 이렇다면 「題栗峰驛」이라는 시도 김수온의 시가 아닌가 싶으며, 이럴 경우 여기서 미인은 봉황지일 것이다.

한편 성종대 율봉도 찰방 金哲孫은 어떤 한 過客이 갑자기 이르매 역리가 암행어사라고 잘못 전하자 두려운 나머지 급하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느리고 있던 기생을 가려진 곳에 숨기려다 잘못하여 溷廁(뒷간) 가운데에 빠뜨렸다. 김철손은 이를 분하게 여겨 과객이 속여서 거짓으로 어사라고 일컬었다고 감사에게 보고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전한다.³⁵⁾ 김철손은 뒤에 성환도 찰방이 되었다가 이 일로 인해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32) 원문의 ‘奔月’은 羿의 처가 不死藥을 훔쳐 달나라로 달아났다는 고사로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이다.

33) 閔德植, 2012, 「慧覺尊者와 福泉寺」, 『年報』 21(충북대학교박물관), 84쪽.

34) 『世宗實錄』 권123, 世宗 31년 2월 丙子.

35) 『成宗實錄』 권297, 成宗 25년 12월 丙子.

(2) 발굴조사자료

가) 1호 연못지

1호 연못지는 중리유적 중 건물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의 남쪽 모서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고, 규모는 장축 9.6m, 단축 6.75m였다. 북동벽과 북서벽은 할석을 단이 지도록 쌓은 벽의 형태가 비교적 잘 남아 있었으나, 남동벽과 남서벽은 축대가 모두 유실되고 흩어 드러난 상태로 심하게 훼손되어, 그 형태가 정연하지 못하였다. 4단이 잔존한 북동벽은 계단식으로 쌓아올렸으며, 벽의 동쪽부분은 크기가 30~70cm의 할석을 이용하여 가로쌓기를 하였고, 서쪽부분은 동쪽에 비하여 작은 10~50cm의 할석을 이용하여 쌓아 확연히 구분되어 벽면의 증축 또는 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3단이 잔존한 북서벽은 북동벽과 마찬가지로 10~50cm의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나 정형성이 없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못의 잔존 최대 깊이는 약 110cm였다. 북동벽과 북서벽을 따라 역 ‘ㄱ’자형으로 잡석이 깔려 있었는데, 북동벽쪽으로는 5.5m 너비이고, 북서벽쪽으로는 4.0m 너비로 남아 있었다. 잔존상태로 보아 연못을 끼고 남쪽을 향하여 누각이나 보도 등의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성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남동벽과 남서벽은 잔존양상이 북동벽과 북서벽에 비하여 양호하지 못하였고, 남쪽 모서리의 구획이 명확하지 않고, 연못가의 축대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연못의 남쪽 모서리가 연못의 증개축 혹은 축소에 의해 다소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었다.³⁶⁾ 1, 2호 건물지와 거의 같은 높이에서 호안석축의 상면이 노출된 것으로 보아 1, 2호 건물지와 함께 중리유적 내에서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³⁷⁾

나) 2호 연못지

2호 연못지는 중리유적의 남쪽 모서리에 자리하고, 북서쪽으로 약 14m 거리에 9호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평면 형태는 사다리꼴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이다. 규모는 평행한 두 벽인 남서벽은 24.75m, 북동벽은

36)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앞 책, 28~31쪽.

37)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98쪽.

20.25m이고, 북서쪽으로 좁아드는 두 벽인 남동벽은 16.5m, 북서벽은 18m였다. 네 벽면에 할석을 이용하여 축대를 쌓았던 것으로 추정되나 벽면을 이루고 있던 할석들이 밀려 무너져 내린 상태로 그 형태가 정연하지 못한 상태였고, 북서벽에서만 열을 맞춘 할석렬이 일부 확인되었다. 연못의 중앙에 원형으로 흙을 돋우어 쌓고 가장자리에 할석을 돌려 섬을 만들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나, 거의 훼손되어 그 흔적만 확인할 수 있었다. 섬의 규모는 지름이 약 10m였다.³⁸⁾ 이는 天圓地方을 상징한 것이다.

2. 察訪

『輿地圖書』에는 울봉역에 울봉도를 관장하는 文 종6품인 찰방 1명이 있었으며, 30개월에 교체되었다고 하였다.³⁹⁾ 찰방은 驛道를 순찰하면서 驛政을 살피고, 역참을 지휘 감독하는 驛官으로, 주요 소관업무는 역도 안에 분포하는 驛의 운영, 驛民의 통솔, 驛路의 관리였다.

찰방은 조선 초에는 教授·生員·成衆去官人·文臣인 朝士·武臣 등이 임명되었으나, 중종·명종대 이후에는 門蔭出身들이 대거 찰방에 제수되었다.⁴⁰⁾ 울봉도 찰방이 문과출신으로 지정된 과정을 보면, 인조 20년 7월의 이조 啓目에 따라 경상좌도의 昌樂驛은 죽령으로 향하는 대로에 있고, 경상우도의 金泉驛은 추풍령으로 향하는 요로에 있고, 전라도의 契樹驛은 호남 감영으로 향하는 요로에 있고, 충청도의 울봉역은 충청좌도의 대로에 있고, 강원도의 保安驛은 營下의 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다섯 역의 음관을 제수하던 자리에 성균관 參下 遞兒를 陞遷하는 것으로 영구한 정식으로 삼았다.⁴¹⁾ 또 『文谷集』에서 金壽恒은 “옛날에 參下官의 직체가 성균관이 가장 심했기 때문에 5驛의 찰방을 성균관 참하관의 자리로 정하여

38)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32쪽. 한편 1호 연못과 2호 연못 사이에는 원형으로 된 우물지 1기가 조사되었다. 할석으로 면을 맞추어 조성한 우물의 내부 지름은 상면이 80~86cm이고, 바닥쪽은 약 95cm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벌어지는 형태였고, 잔존 최대 깊이는 약 170cm였다(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37쪽).

39) 『輿地圖書』 淸州牧 驛院.

40) 趙炳魯, 2002, 『韓國驛制史』(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12~213쪽.

41) 『承政院日記』 책82, 仁祖 20년 7월 戊子.

승진하는 발관으로 삼았는데, 그 뒤에 承文院 참하관의 적체가 성균관보다 심했기 때문에 啓稟하여 변통해 5역 가운데 두 곳과 기타 3역의 찰방을 승문원 참하관 자리로 바꾸었다. 그러나 지금은 성균관의 참하관을 예전 그대로 5역 가운데 3역을 차출하여 보내고, 승문원 자리 5역은 울봉역 한 곳 외에는 모두 蔭官으로 차출하여 보내고 있다. 승문관과 성균관에서 차출하여 보내는 馬官의 자리를 이전에 정한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적당히 기한을 정하여 참하관이 적체되는 동안 그대로 준행해야 한다.”고 하였다.⁴²⁾ 이처럼 울봉도 찰방은 음관직이었다가 인조 20년 7월에 문과출신직으로 바뀐 것이다. 하여튼 울봉역이 있던 청주목의 목사는 정3품이지만 蔭敍 출신도 제수될 수 있기 때문에 문과 출신인 울봉도 찰방은 힘 없는 職任이지만⁴³⁾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다.

한편 찰방은 到任한 날로부터 가산하여 30朔이 되면 遷轉되었으나, 상당수는 瓜遞되기 전에 교체되거나 파면되었다. 즉 병조⁴⁴⁾와 함께 찰방을 지휘 감독하던 관찰사의 憑考에 따라 근무상태나 작패를 참고하여 黜陟되었다.⁴⁵⁾

역대 울봉도 찰방들을 살펴보면 성종 8년 5월에는 울봉도 찰방 全重孫이 昌原君 李晟에게 정한 수 밖의 역마를 지나치게 준 죄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은 일이 있었다.⁴⁶⁾ 동왕 14년 7월에는 대왕대비인 세조비 貞憲王后的 국상 중에 수고한 신하들을 논상하는 가운데 울봉도 찰방 尹繼丁이 벼슬을 올려 받았다.⁴⁷⁾ 대왕대비는 온양온천(온양행궁)에서 승하하여 경기도 樂生驛를 거쳐 도성 밖 永順君의 집에 殯殿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울봉도 찰방도 여기에 참여하였던 모양이다. 또 동왕 25년 12월에는 성환도 찰방 金哲孫이 울봉도 찰방으로 있을 때의 죄과로 사간원의 탄핵을

42) 『文谷集』 권17, 議 文臣參下積滯變通議.

43) 찰방은 縣監과 같은 중6품관으로서 無祿官이지만, 奉使를 목적으로 설치한 관직이기 때문에 서열이 현감보다 상위였다(『成宗實錄』 권207, 成宗 18년 9월 庚戌).

44) 程驛은 병조의 乘輿司가 맡았다(『經國大典』 권1 吏典 京官職).

45) 趙炳魯, 『韓國驛制史』, 216~224쪽.

46) 『成宗實錄』 권80, 成宗 8년 5월 丙戌.

47) 『成宗實錄』 권156, 成宗 14년 7월 甲辰.

받고 파직되었다.⁴⁸⁾

효종 7년에는 金重△가 찰방으로 있었는데, 『察訪金公重△善政碑』가 있다. 현종 1년 3월 15일에는 李耆徵이 찰방으로 부임하여 8월 29일에 교체되고, 후임으로는 尹△△가 부임하였다.⁴⁹⁾ 숙종 11년 10월에는 呂必容이 찰방으로 부임하였다.⁵⁰⁾ 또 숙종 19년에는 李翼年이 찰방으로 있었다. 이 익년은 동왕 19년 12월에 사헌부 持平이 되었는데,⁵¹⁾ 찰방을 거쳐 지평(정5품)이 된 것이다. 『行察訪李公翼年善政碑』가 있다. 숙종 20년에는 權以鎭이 승문원 부정자에서 울봉역 찰방에 제수되었는데, 상사와 인척이 되는 혐의 때문에 김천역 찰방으로 교체되었다.⁵²⁾

영조 40년 10월에 새로 檢閱로 제수된 李亨元이 울봉역 任所에서 역마를 타고 상경했다는 것으로 보아,⁵³⁾ 이형원도 찰방으로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정조 10~11년은 申驥顯, 정조 12~13년은 趙景逵, 정조 14~15년은 金和鍾, 정조 16~19년은 趙秀民, 정조 19~21년까지는 姜時煥이 이어서 찰방을 맡았다.⁵⁴⁾ 이 중에서 조수민은 정조 17년에 자비로 조 48섬 10두를 마련하여 울봉역에서 饑民 730명을 구휼하고,⁵⁵⁾ 동왕 19년에도 자비로 쌀 4섬 7두 6승을 마련하여 기민 179명을 구휼하였다.⁵⁶⁾

고종 2년에는 철종 12년에 문과에 급제한 許稷이 찰방으로 있었다. 허직은 고종 9년에 慈仁縣監을 지내고,⁵⁷⁾ 11년 9월에는 眞殿에서 작헌례를 거행할 때 典祀官을 맡았다.⁵⁸⁾ 그는 승정원 假主書を 시작으로 울봉역 찰

48) 『成宗實錄』 권297, 成宗 25년 12월 丙子.

49) 『李耆徵栗峰道察訪解由文書』.

50) 『承政院日記』 책319, 肅宗 12년 11월 己丑.

51) 『肅宗實錄』 권25, 肅宗 19년 12월 乙亥. 이익년은 전주 이씨로 德泉君 李厚生의 후손인데, 문과에 급제하여 진주목사를 지냈다.

52) 『星湖全集』 권64, 墓誌銘 戶曹判書有懷堂權公墓誌銘.

53) 『承政院日記』 책1235, 英祖 40년 10월 己卯.

54) 『日省錄』 正祖 21년 3월 1일.

55) 『日省錄』 正祖 17년 5월 24일.

56) 『日省錄』 正祖 19년 5월 22일.

57) 『各司謄錄』 慶尙監營啓錄 高宗 9년 6월 4일.

58) 『高宗實錄』 권11, 高宗 11년 9월 壬子.

방을 거쳐 예조정랑 등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다. 『行察訪許公稷永世不忘碑』가 있다. 또 金河璉도 찰방을 지냈는데, 그는 고종 24년 5월에 거주서,⁵⁹⁾ 9월에 權知承文院 副正字가 되고,⁶⁰⁾ 이때 承文分館人으로 나이가 50세라 하여 陞六(6품이 됨)되었다.⁶¹⁾ 고종 31년에 찰방을 지냈다. 『行察訪兼外史官金公河璉去思碑』가 있다. 이 비는 본래에 세워져 있던 사진이 남아 있다.

3. 驛吏

『輿地圖書』⁶²⁾에는 울봉역에 240명의 역리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 울봉역은 울봉도의 本驛이기 때문에 별도로 內下吏 43명과 知印 16명을 두었다.⁶³⁾ 한편 호남의 參禮驛에는 察訪, 將校(2), 衙典(25), 知印(8), 使令(12), 官奴(6), 官婢(2), 書者(12), 馬戶(15), 驅從(8)이 있었다.⁶⁴⁾ 여기서 장교는 조선후기에 承發로 일컬어졌는데, 각종 使行의 迎送과 支持, 공문서의 수발 등을 맡았으며,⁶⁵⁾ 사령은 조선후기에 日守(日守兩班)을 대신한 것이고, 서자(書員)는 문서작성, 전답의 답험, 전세징수 등을 맡은 吏屬으로 서리층의 하나였다.⁶⁶⁾ 삼례역의 장교와 아전은 울봉역에서는 리로, 삼례역의 사령과 서자는 울봉역에서는 내하리로 분류된 것이 아닌가 싶다. 또 知印은 『掾曹龜鑑』에는 印信을 담당하였다고 하였는데,⁶⁷⁾ 주로 찰방 遞等(신

59) 『承政院日記』 책2961, 高宗 24년 5월 乙酉.

60) 『承政院日記』 책2965, 高宗 24년 9월 辛巳.

61) 『備邊司謄錄』 책268, 高宗 24년 9월 25일. 김하런은 關北 사람으로 사간 金鍾善의 제자인데,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亂逆에 가담한 공으로 吉州 군수가 되어 친일 행위를 하고 『毅菴先生文集』 권43, 題跋 書吉州李石南三篇文後), 光武 3년 10월에는 宮內府 通信司 電話課의 主事에서 中樞院議官이 되었다(『高宗時代史』 4, 光武 3년 10월 22일).

62) 『輿地圖書』에 수록된 各邑의 邑誌는 영조 33년에서 영조 41년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부분 영조 36년 이후에 修輯 編成된 것이다.

63) 『輿地圖書』 淸州牧 驛院.

64) 『湖南驛誌』 參禮道驛誌事例.

65) 裴基憲, 1995, 앞 글, 58쪽.

66) 裴基憲, 1992, 「朝鮮後期 驛村에 대하여-驛村의 內部構造 및 性格變化와 관련하여-」, 『大丘史學』 43(大丘史學會), 67쪽.

67) 『掾曹龜鑑』 권1, 吏職名目解.

관과 구관이 갈마듬) 때 通謁 引接의 업무를 담당하던 通引의 역할도 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지인이 있던 울봉역·參禮驛·松羅驛·沙斤驛 등에는 통인이 없고, 통인이 있던 大同驛·魚川驛·景陽驛·濟原驛·契樹驛·碧沙驛·沙斤驛·幽谷驛·黃山驛 등에는 지인이 없다. 지인과 통인은 주로 찰방의 陪從을 하며, 역할이 서로 유사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여기서 역리는 15세에서 60세까지 郵傳이라는 力役을 담당한 吏胥로서, 별도의 驛史案(形止案, 驛戶口臺帳)을 가지고, 거주하는 역을 본관을 삼고,⁶⁸⁾ 신분은 일반적으로 良人에 속하며,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역리들은 迎送·支待·運輸·立馬·赴防役 등의 立役을 부담하였으며, 일부 역리는 행정 실무를 분임하여 집행하는 아전으로서의 역할을 맡았다.⁶⁹⁾ 역리는 驛役을 부담하는 댓가로 人位田·馬位田을 지급받아 경작하여 그 수확으로써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선후기에는 以身應役하는 立役驛吏와 散居하면서 1년에 2兩씩의 身貢을 납부하는 納貢驛吏로 분화되었다.⁷⁰⁾

한편 정조 16년 12월에 충청병사 李光燮이 부임하여 連源과 울봉의 역리를 刑訊하자, 충청감사 李亨元이 병사가 법을 여겼다고 그에게 죄를 내릴 것을 장계하였다. 이에 備局에서 군량 창고를 연 일 이외에는 역리들을 형신할 수 없게 하고, 만일 이를 어겼을 때는 濫刑律에 의해 처리토록 하였다.⁷¹⁾

4. 驛奴婢

『輿地圖書』에는 울봉역에 노 102명, 비 30명이 있었다고 하였다.⁷²⁾ 驛奴婢는 驛에서 立馬役, 馱運役, 雜役 등의 勞役을 제공하는 公賤이었다.

68) 趙炳魯, 2002- 『慶尙道 金泉驛戶口臺帳』(國學資料院), 15쪽.

69) 아전은 6房 分任에 따라 吏·禮·戶·兵·刑·工房으로 나누어 역에서의 인사, 호적, 재정, 형옥, 도구 등의 행정업무를 분담하였다(趙炳魯, 2014, 앞 글, 23쪽).

70) 趙炳魯, 2002, 앞 책, 239~283쪽. 청암역은 1896년 현재에 역리가 527명인데 時仕가 20명, 역노는 58명인데 時使가 31명, 역비는 29명인데 時使가 1명이었다(『湖南驛誌』 靑巖道驛誌及事 例成冊).

71) 『正祖實錄』 권36, 正祖 16년 12월 辛卯.

72) 『輿地圖書』 淸州牧 驛院.

역노비는 力役에 따라 사신의 卜物이나 進上, 貢賦 등의 관수품을 운반하는 轉運奴婢, 脚力을 이용하여 문서를 진송하는 急走奴婢로 나눌 수 있다.⁷³⁾ 이들은 立役의 댓가로 口分田을 지급받았다. 驛奴婢는 馬位田을 지급받아 말을 사육하여 入代시키거나 말 값을 내는 立馬役을 지고 있었다.

5. 驛馬

『李耆徵栗峰道察訪解由文書』에는 울봉역에 상등마 3필, 중등마 8필이 있다고 하였고, 『輿地圖書』에는 상등마 3필, 중등마 10필이 있다고 하였다.⁷⁴⁾

6. 財政

1) 歲入

(1) 公須位田

『賦役實摠』(1794년)에서는 청주·옥천·문의·회덕·영동·황간·청안·진천·보은 등 屬邑 9개 읍에서 거두어들이는 公須位米가 24석 10두,⁷⁵⁾ 太가 24석 10두라고 하였다.⁷⁶⁾

또 『栗峰驛事例』(1871년의 『湖西邑誌』 청주목읍지에 포함)에서는 청주는 공수위미 6석 8두 5홉, 태 3석 8두 7승 7홉, 청안은 공수위미 1석 5두, 진천은 공수위미 4석, 태 4석, 보은은 公須位木 8필 16척 3촌, 문의는 공수위목 13필 10척, 옥천은 공수위미 5석 9두 4승 8홉, 영동은 공수위미 2석, 태 2석, 황간은 공수위미 1석 13두 1홉 2夕, 태 2석 5두 9승 8홉 8석, 회덕은 공수위미 12두 4승 8석, 태 7두 5승 6홉 8석이라고 하였다.⁷⁷⁾ 이상은 9개 읍에 지급된 公須(需)位田(公須田, 廩給田)에서 나오는 收稅였다. 즉 각 읍에 분포되어 小作制에 의해 位田 耕作者로부터 수세한 것이

73) 趙炳魯, 2002, 앞 책, 311~312쪽.

74) 『輿地圖書』 淸州牧 驛院.

75) 參禮驛에서는 使客支供米가 33석 13두라고 하였는데(『賦役實摠』 5, 全羅道 參禮驛), 울봉역에서도 공수위미 등이 이러한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76) 『賦役實摠』 2, 忠淸道 栗峰驛.

77) 『湖西邑誌』 淸州 栗峰事例.

다. 전체는 쌀이 21석 7두 9승 5홉, 콩이 12석 2두 3승 2홉 6석, 포묵이 21필 26척 3촌이었다.

여기서 公廩田인 공수위전은 驛舍의 수리, 사신지공비 등 역 운영의 전체적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였다. 역의 공수위전은 대로 20결, 중로 15결, 소로 5결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⁷⁸⁾ 實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⁷⁹⁾ 즉 공수위전은 각 지방 군현에 분포되어 있는 驛位土로 位田 경작자로부터 소작제에 의해 수세하였다.⁸⁰⁾

표 2. 울봉역의 공수위전 수세 현황(『栗峰驛事例』)

읍명	쌀	콩	포묵	비고
청주	6석 8두 5홉	3석 8두 7승 7홉		1석은 20두(섬)
청안	1석 5두			
진천	4석	4석		
보은			8필 16척 3촌	1필은 4丈, 1장은 10척
문의			13필 10척	
옥천	5석 9두 4승 8홉			
영동	2석	2석		
황간	1석 13두 1홉 2석	2석 5두 9승 8홉 8석		
회덕	12두 4승 9석	7두 5승 6홉 8석		
계	21석 7두 9승 5홉	12석 2두 3승 2홉 6석	21필 26척 3촌	

(2) 馬位田

78) 『經國大典』 권2, 戶典 諸田.

79) 세종 10년에 量田을 할 때에(『世宗實錄』 권41, 世宗 10년 8월 丙戌), 역이 있는 곳의 길의 대, 중, 소를 생각하지 않고, 당시 마필의 유무만 따라서 주었기 때문에 역로가 날이 갈수록 폐쇄하게 되었다고 한다(『燕山君日記』 권36, 燕山君 6년 정월 辛巳).

80) 趙炳魯, 2002, 앞 책, 469~474쪽.

『栗峰驛事例』에는 울봉도 17참역 詳定位田畝(位畝과 位田) 1,094결안에서 1,006결은 馬戶에게 분급하고, 이 중에서 88결은 川陳이라고 하였다.⁸¹⁾ 즉 88결은 하천에 의한 覆沙로 인해 陳荒地가 되어 마호에게 분급을 못하는 땅이 된 것이다.⁸²⁾ 정조 2년 1월에는 洪忠監司 徐有麟의 각 고을의 폐단을 조목별로 열거한 장계에 따라 영의정 金尙喆의 아뢰므로 울봉도 3역의 마위전에 징수하는 卜數(稅)를 너무 많이 징수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 양전할 때 전체를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한 일이 있었다.⁸³⁾

馬戶에게 지급되어 입마자의 公役에 대한 보수와 入馬役に 쓰이는 경제기반인 마위전은 역마를 사육하여 역에 雇立하고자 입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토지로, 주로 역리·역졸·館軍 등에게 지급되었으나, 점차 역호의 조간으로 助役人이나 평민도 그 대상이 되어 입마역을 담당하였고, 역 근처의 良田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⁸⁴⁾ 마위전은 각 역의 역마의 숫자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대마는 7결, 중마는 5결 50負, 소마는 4결씩 차등 지급하였으나 역의 긴요도에 따라 가급되었다.⁸⁵⁾

官有地의 일종으로 有役人田인 마위전은 본래 自耕無稅地인 公田의 성격을 띠는 토지였다.⁸⁶⁾ 그러나 본 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을 받아 役事는 번거롭고 직접 경작할 겨를이 없어, 혹은 남에게 주어 같이 경작하기도 하고, 혹은 그租만 받고 있어 생계가 날로 더 곤란하게 되었다.⁸⁷⁾ 이처럼 마위전은 역 근처의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각 읍에 산재되어 있어, 마호는 대부분 소작제에 의해 賭租를 징수하여 입마가를 충당하였다. 또 마위전은 본래 매매를 할 수 없는 토지였으나, 마호

81) 『湖西邑誌』 淸州 栗峰事例.

82)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驛位田은 廢寺田이나 屬公田으로 充給하도록 되어 있었다(『續大典』 권2, 戶典 諸田).

83) 『正祖實錄』 권5, 正祖 2년 정월 辛未 ; 『備邊司謄錄』 책159, 正祖 2년 정월 16일.

84) 趙炳魯, 2002, 앞 책, 474쪽.

85) 『經國大典』 권2, 戶典 諸田. 대개 量田할 때 명목이 마위전이라면 실제 없는 卜數를 結數에 넣어, 10결이라는 땅이 백성의 전지와 비교하면 2~3卜에 불과하였다고 한다(『農圃問答』 祛弊廢).

86) 『經國大典』 권2, 戶典 諸田.

87) 『世宗實錄』 권27, 世宗 7년 2월 乙丑.

가 과중한 立馬·改馬費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함부로 驛位土인 마위전을 賤地로 매매하여 土豪兩班, 饒戶富民에 의한 마위전 잠식은 그치지 않았다.⁸⁸⁾ 주로 도지로 매매되는 權賣는 경우에 따라서는 永賣가 되어 역위토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의 경제적 기반인 역위토의 無實化는 농토를 주 생활기반으로 하는 역호의 몰락과 역참의 衰殘을 초래하였다.

(3) 復戶田

『栗峰驛事例』에는 울봉도 17참역의 立役吏卒에게 지급하는 복호전(給復田)이 1,260결이고, 이 중에서 34결 2부는 京畿營에 除出되었고, 나머지 實結은 1,225결 98부라고 하였다.⁸⁹⁾ 경기감영에 34결 2부를 준 것은 畿驛의 事役이 煩重하므로 連原驛과 金井驛처럼 복호전을 떼어서 기억에 이송한 것이다.⁹⁰⁾

驛戶에 대한 復戶는 전기에는 徭役(잡역)을 면제하여 주던 것이, 선조 33년에는 驛路蘇復策의 일환으로 復戶免貢(貢納免除)으로 대체되고, 인조 원년경부터 自己所耕田에 대한 給復인 田結復戶로, 숙종 연간에 民結復戶로 확대된 것이다. 민결복호의 실시로 所耕田을 가진 역호는 自己結負에 복호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各邑의 民田을 복호하여 거기에서 감면된 大同稅를 관에서 징수하여 일부를 역호에 분급해 주고, 일부는 역재정에 전용하였다.⁹¹⁾

경기 諸驛의 驛吏卒에게는 1인당 1결, 충청·전라·경상도와 관동의 제역에는 5결(大同米 60두), 海西 제역에게는 12결이 지급되었다.⁹²⁾ 이러한 역이줄에 지급된 복호전에서 대동미를 收取作錢하여 이것으로 驛馬價·養馬費를 마련하거나 역의 재정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역호나 巡營에서 糶稅

88) 『成宗實錄』 권72, 成宗 7년 10월 辛未 ; 『中宗實錄』 권13, 中宗 6년 2월 丁未 ; 『顯宗實錄』 권5, 顯宗 3년 8월 甲辰 ; 『英祖實錄』 권51, 英祖 16년 4월 辛巳.

89) 『湖西邑誌』 淸州 栗峰事例.

90) 『承政院日記』 책1058, 英祖 26년 7월 辛丑.

91) 裴基憲, 1992, 앞 글, 106~110쪽.

92) 『備邊司謄錄』 책90, 英祖 7년 9월 30일.

時 지급받을 대동미를 수개월 앞당겨서 부유층에 헐가로 放買하는 私賣나 預賣가 성행하였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관에서 변통책으로 이를 바탕으로 고리대를 하여 여기서 나온 수익으로 驛屯土를 매입하여 지대수입을 역제정에 충당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변통책으로 마련한 營補廳 등에 매호에게 지급되는 復戶結이 移付되어 매호에게는 단지 每結에 2량씩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찰방과 역리들의 수증으로 들어가지도 하는 등,⁹³⁾ 각 읍에 손실을 주면서까지 중앙정부에서 어렵게 마련한 복호를 둘러싼 제반 협잡과 비리도 자행되었다.

(4) 各驛收捧

『賦役實摠』에는 支供米가 34석 6두인데, 찰방이 거주하는 울봉역과 증약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5역에서 172馬戶가 每戶에 쌀 3두씩이라고 하였다. 또 眞麥(찰보리)은 4석 2승인데, 매호에 진맥 3승 5홉이고, 生鷄(생닭)는 516首인데 매호에 생계 3수라고 하였다. 眞荏(참깨)은 1석 7두 3승 6홉인데, 매호에서 진임 1승 3홉이고, 水荏(들깨)은 1석 7두 3승 6홉인데, 매호에서 수임 1승 3홉이라고 하였다. 또 木花는 172근인데, 매호에서 목화 1근이고, 生麻는 172근인데, 매호에서 생마 1근이고, 炭(숯)은 72석인데, 6驛에서 역마다 매달 탄 1석이라고 하였다. 또 籠衫丁은 15浮인데, 울봉역과 증약역을 제외한 15역에서 매 역마다 농삼정 1부씩을 거두어서 使客行에 사용하였다고 하였다.⁹⁴⁾ 또 『栗峰驛事例』에는 17참역에서 봄, 가을 나누어 收捧하는 품목이 錢 1,470량 3진 5푼, 壯紙 48束, 別白紙 48속, 白紙 448속, 正鐵 160斤, 馬鐵 194部, 生麻 23丹, 木花 142근, 米 33석 10두, 眞麥 3석 10두, 眞荏 1석 4두 5승, 水荏 2석 4두 5승, 生鷄 432首라고 하였다.⁹⁵⁾

(5) 吏奴貢錢

『賦役實摠』에는 17역의 應貢吏奴는 그들의 빈부에 따라 分等하여 收捧하는데, 一等吏奴의 貢錢은 884량이며 442명이 2량씩이고, 二等吏奴의 貢

93) 『備邊司謄錄』 책235, 憲宗 14년 정월 7일.

94) 『賦役實摠』 2, 忠淸道 栗峰驛.

95) 『湖西邑誌』 淸州 栗峰事例.

錢은 1,057량 5전으로 705명이 1량 5전씩이라고 하였다.⁹⁶⁾

(6) 吏奴貢品

『賦役實摠』에는 三等吏奴貢은 馬鐵(말편자) 203部로 三等馬의 遠近行 및 赴燕等役に 지급하며, 29명이 마철 7부씩이다. 吏奴貢은 正鐵 175근을 수봉하며, 삼등마 원근행 出使時 마철 대신 지급하는데, 25명이 정철 7근씩이다. 또 白紙 420束으로 매달 얼마씩 公事의 下紙로 사용하며, 60명이 백지 7속씩이라고 하였다.⁹⁷⁾

앞서의 이노공전은 생활이 어느 정도 나은 1등이노와 2등이노가 바치는 身貢錢이고, 본 이노공품은 신공전도 낼 수 없는 생활이 곤궁한 3등이노가 바치는 身貢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처럼 驛吏奴가 入役하지 않는 경우 신공전이나 신공품을 상납하고 면역되었다.

(7) 婢貢給代錢

『賦役實摠』에는 비공급대전이 199량 5전이라고 하였다.⁹⁸⁾ 또 『栗峰驛事例』에도 비공급대전이 199량 5전으로, 매년 설달에 營門에 보고하여 청하면 영문에서 本驛에 劃下한다고 하였다.⁹⁹⁾

(8) 婢役價錢

『賦役實摠』에는 비역가전이 70량 5전인데, 235명이 3전씩이라고 하였다.¹⁰⁰⁾

2) 歲出

(1) 情錢

『賦役實摠』에는 式年(子·午·卯·酉)에 吏奴의 形止案 개정시 吏奴 862戶에 매호 1전씩 합 86량 2전을 거두어서 紙筆墨 및 磨勘雜費로 쓰였다고

96) 『賦役實摠』 2, 忠清道 栗峰驛.

97) 『賦役實摠』 2, 忠清道 栗峰驛.

98) 『賦役實摠』 2, 忠清道 栗峰驛.

99) 『湖西邑誌』 淸州 栗峰事例.

100) 『賦役實摠』 2, 忠清道 栗峰驛.

하였다.¹⁰¹⁾ 또 『栗峰驛事例』에는 3년에 한 번씩 形案을 병조에 磨勘할 때의 정진이 45량이고, 重記情錢이 4량이며, 四季朔(사계절)에 문서를 보고할 때의 정진이 매달 3량씩이라고 하였다.¹⁰²⁾ 즉 形止案이나 文書 修報時의 情錢(情費錢)이다.

(2) 成歡急走錢

『賦役實摠』에는 45량을 급주전으로 성환역에 보냈다고 하였다.¹⁰³⁾ 또 『栗峰驛事例』에서도 성환급주전이 봄에 20량, 가을에 25량이라고 하였다.¹⁰⁴⁾

(3) 入居木上納錢

『賦役實摠』에는 194량 7전을 入居木代錢으로 경기 中營에 납부하였다고 하였다.¹⁰⁵⁾ 또 『栗峰驛事例』에는 入居木上納錢이 봄에 78량 9전 6푼이고, 가을에 108량 3전 2푼이라고 하였다.¹⁰⁶⁾ 입거목은 三南 및 嶺東지방 각 역의 人馬를 경기감영에 立番하게 하였는데, 京驛의 侵虐이 심하여 폐지하는 대신 입거목이라는 명목으로 거두어들여 六驛에 분급한 것인데, 지방의 각 역들은 역민들로부터 징수하여 경기감영에 상납하였다.¹⁰⁷⁾

(4) 赴燕馬資裝錢

『賦役實摠』에는 360량 3전은 三等馬 改立 添價 및 赴燕夫馬資裝兩具價 등 다양하게 쓰였다고 하였다.¹⁰⁸⁾ 또 『栗峰驛事例』에도 赴燕馬資裝錢¹⁰⁹⁾

101) 『賦役實摠』 2, 忠淸道 栗峰驛.

102) 『湖西邑誌』 淸州 栗峰事例.

103) 『賦役實摠』 2, 忠淸道 栗峰驛.

104) 『湖西邑誌』 淸州 栗峰事例.

105) 『賦役實摠』 2, 忠淸道 栗峰驛.

106) 『湖西邑誌』 淸州 栗峰事例.

107) 『備邊司謄錄』 책90, 英祖 7년 9월 30일 ; 趙炳魯, 2014, 앞 글, 28~29쪽.

108) 『賦役實摠』 2, 忠淸道 栗峰驛.

109) 경상도 黃山驛의 세출항목에도 赴燕馬資裝錢 70량이 들어 있다(『賦役實摠』 8, 慶尙道 黃山驛).

이 馬 매匹에 10량이고, 情錢이 10량이라고 하였다.¹¹⁰⁾

중국으로의 使行에는 명에 가는 것을 朝天, 청에 가는 것을 燕行이라고 하였는데, 정례사행으로는 冬至, 正朝, 聖節, 千秋 등이, 임시사행으로는 謝恩, 奏請, 進賀, 陳慰, 進香 등이 있었다. 赴燕馬資裝錢은 이러한 사행에 지출된 錢이다. 『湖南驛誌』 葵樹道驛誌及事例에는 赴燕馬의 정진 및 노자는 각역 馬戶에게 分排한다고 하였다. 한편 숙종 38년의 冬至使 겸 謝恩使에는 정사로 판중추부사 金昌集, 부사 尹趾仁, 서장관 盧世夏가 맡았는데,¹¹¹⁾ 울봉역의 驛子(驛奴) 金禾延은 押物通事 金昌夏의 卜刷馬 마부로 참여하였다.¹¹²⁾

(5) 邸吏役價錢

『賦役實摠』에는 저리역가전이 180량인데, 17역에서 200馬戶가 每戶 6전씩, 馬夫가 每名 3전씩을 거두어서 지급하였다고 하였다.¹¹³⁾ 이는 호남 碧沙驛의 京邸吏役價錢 200량, 營邸吏役價錢 130량에 비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경저리역가전인 듯하다.

(6) 兵營守番雇價錢

『賦役實摠』에는 兵營에 守番하는 書者 1명과 驅從 1명에게 주는 고가전이 매달 7량 2전씩인데, 馬戶 등에게서 돌아가며 받아서 지급하였다고 하였다.¹¹⁴⁾

(7) 기타

『賦役實摠』에는 京城의各司·各營門·各邑의 公事 수행자의 雇價가 120량이고, 各班下人의 畵糧 및 邸吏의 饌價가 220량이며, 기타 油淸紙地·饌肉 등등을 구입하는데 1,178량 5전이 쓰였다고 하였다.¹¹⁵⁾

110) 『湖西邑誌』 淸州 栗峰事例.

111) 『肅宗實錄』 권52, 肅宗 38년 11월 壬午.

112) 『老稼齋燕行日記』(金昌業) 권1.

113) 『賦役實摠』 2, 忠淸道 栗峰驛.

114) 『賦役實摠』 2, 忠淸道 栗峰驛.

115) 『賦役實摠』 2, 忠淸道 栗峰驛.

7. 還穀

울봉역의 정조 6년조의 체납된 환곡은 416섬 2두 7홉 남짓이었는데, 정조 19년에 이를 탕감하여 주었다.¹¹⁶⁾ 또 정조 18년의 환곡 作來錢은 2,012냥이었다.¹¹⁷⁾

정조 21년 3월에 충청도 관찰사 林濟遠이 울봉역의 환곡을 虛錄, 反作(변질)¹¹⁸⁾한 것에 대하여 조사하여 장제한 내용을 보면 문적이 있는 정조 10년부터 조사하여 보니, 정조 10년에는 米·租·太도 697섬 남짓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였으면서 거두어들인 것으로 허락하였고, 미 대신 태·조도 653섬 남짓을 單代¹¹⁹⁾으로 거두어 들었다.

정조 11년에는 허락된 각종 곡물과 그 耗租까지 합쳐 767섬 남짓 되는 것을 그대로 변질한 상태로 둔 것 외에 미와 조 및 미를 태로 대신한 것도 도합 660섬을 허락하였고, 예전부터 해 왔던 대로 미를 태와 조로 대신한 것은 그 모조까지 합쳐 718섬 남짓을 단대봉으로 거두었다. 그 당시에 찰방은 申驥顯이었다.

정조 12년에 허락된 각종 곡물과 모조까지 합쳐 1,570섬 남짓되는 것 중에서 조 279섬 남짓은 거두어 들였고, 나머지 1,290섬 남짓은 그대로 변질한 상태로 두었으며, 단대봉하는 태와 조는 모조까지 합쳐 790섬 남짓을 그대로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친 것 외에 미를 대신한 조 39섬 남짓은 또 다른 것으로 대신 바쳤다.

정조 13년에는 허락된 각종 곡물과 그 모조까지 1,419섬 남짓되는 것을 그대로 변질한 상태로 둔 것 외에 미 211섬 남짓을 허락하였다. 단대봉하는 태와 조는 모조를 합쳐 913섬 남짓을 그대로 다른 것으로 대신 바쳤다. 그 당시의 찰방은 趙景達이었다.

정조 14년에는 허락된 각종 곡물과 그 모조까지 합쳐 1,794섬 남짓 되는 것 중에서 미 74섬 남짓과 조 462섬 남짓을 거두어들였고, 그 나머지

116) 『日省錄』 正祖 19년 6월 29일.

117) 『賦役實摠』 2, 忠淸道 栗峰驛.

118) 변질은 吏屬들이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환곡을 부정하게 출납하는 행위이다.

119) 단대는 단일 품목으로 대신하여 바치는 곡식인 單代穀이다.

1,256섬 남짓은 그대로 번질한 상태로 두었으며, 단대봉하는 조와 태는 모조까지 합쳐 1,004섬 남짓되는 것 중에서 태 170섬을 本米로 도로 바꾸었고, 그 나머지 834섬 남짓은 그대로 다른 것으로 대신 바쳤다.

정조 15년에 허록된 각종 곡물과 그 모조까지 합쳐 1,382섬 남짓 되는 것을 그대로 번질한 상태로 둔 것 외에 조 667섬을 허록하였고, 단대봉하는 태와 조는 그 모조까지 합쳐 917섬 남짓은 그대로 다른 것으로 대신 바쳤다. 그 당시의 찰방은 金和鍾이었다.

정조 16년에는 허록된 각종 곡물과 그 모조까지 합쳐 2,254섬 남짓 되는 것을 그대로 번질한 상태로 둔 것 외에 조 613섬 남짓을 허록하였고, 단대봉하는 태와 조는 모조까지 합쳐 1,009섬 남짓을 그대로 다른 것으로 대신 바쳤다.

정조 17년에는 허록된 각종 곡물과 그 모조까지 합쳐 3,155섬 남짓되는 것을 그대로 번질한 상태로 둔 것 외에, 미 310섬 남짓을 허록하였고, 단대봉하는 태와 조는 모조까지 합쳐 1,110섬 남짓되는 것 중에서 태 69섬 남짓과 조 13섬 남짓을 본미로 도로 바꾸었으며, 그 나머지 1,028섬 남짓은 그대로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

정조 18년에는 허록된 각종 곡물과 그 모조까지 합쳐 3,812섬 남짓되는 것을 그대로 번질한 상태로 둔 것 외에, 조 272섬 남짓과 미를 태로 대신한 314섬 남짓을 허록하였고, 단대봉하는 태와 조는 모조까지 합쳐 1,130섬 남짓을 그대로 다른 것으로 대신 바쳤다. 그 당시의 찰방은 趙秀民이었다.

정조 19년에는 허록된 각종 곡물과 그 모조까지 합쳐 4,839섬 남짓되는 것 중에서 미와 조 및 미를 태로 바꾼 것 도합 895섬을 거두어 들였고, 그 나머지 3,944섬 남짓은 그대로 번질한 상태로 두었으며, 단대봉하는 태와 조는 모조를 합쳐 1,243섬 남짓되는 것을 그대로 다른 것으로 대신 바쳤다.

정조 20년에는 허록된 각종 곡물과 모조까지 합쳐 4,339섬 남짓되는 것 중에서 미와 조 및 미를 대신한 태 도합 3,527섬 남짓을 거두어 들였고, 그 나머지 811섬 남짓은 그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한 채로 두었으며, 단대봉하는 태와 조는 모조까지 합쳐 1,368섬 남짓 가운데 태 78섬 남짓과 조

14섬 남짓을 본미로 도로 바꾸었고, 그 나머지 1,275섬 남짓은 그대로 다 른 것으로 대신 바꿨다. 시임 찰방인 姜時煥이 사실대로 마감하였다. 정 조 19년에 마감한 것은 시임 찰방이 같은 해 11월에 부임하였으므로 이 전부터 전해 내려온 번질과 逋欠(未納稅), 단대봉에 대해 즉시 營內에 보 고한 것이다.

울봉의 단대봉은 증거로 삼을 만한 문적이 없고 年條도 상세하지 않은 데, 1,000포의 미를 대신한 租와 太로 만약 한결같이 本色으로 도로 바꾼 다면(還作) 곤궁한 民情으로 볼 때 장차 역참이 사라지게 될 우려가 없지 않을 것이고, 막중한 나라의 곡물을 해마다 번질하여 풍년이 든 해에도 기준 수량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폐단이 있게 하였으니 전후의 찰방 의 죄상을 범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¹²⁰⁾

이에 우의정 李秉模가 충청도 관찰사 임제원의 장계 내용을 정조에게 아뢰자, 각 연도에 허록하여 마감한 당시의 충청도 관찰사를 추고토록 조 치하였다.¹²¹⁾ 이때 정조 14년조를 허록하여 마감한 관찰사는 朴宗岳이였 고, 정조 15년조를 허록하여 마감한 관찰사는 朴天衡이며, 정조 16·17년조 를 허록하여 마감한 관찰사는 李亨元이었다.¹²²⁾

한편 驛舍에는 역호들을 구제하기 위한 진휼곡이나 환곡을 저장, 관리 하는 賑恤庫(倉)가 있었으며, 환곡을 관리하는 倉色吏들은 還政의 문란으 로 환곡 운영을 둘러싼 고질적인 포함을 파생시켰다. 결국 奸吏들의 偷食 으로 과다한 환곡은 역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다.

8. 徒配

인조 6년 7월에는 함부로 역마를 탄 柳山立을 울봉역으로 징배하고,¹²³⁾ 숙종 32년 7월에는 전 군수 宋相會를 徒 2년으로 울봉역에 징배하였 다.¹²⁴⁾ 영조 15년 7월에는 징배죄인 李錫杓를 放還하고,¹²⁵⁾ 동왕 40년 4

120) 『日省錄』 正祖 21년 3월 1일.

121) 『備邊司謄錄』 책185, 正祖 21년 4월 29일.

122) 『日省錄』 正祖 21년 4월 25일.

123) 『承政院日記』 책22, 仁祖 6년 7월 丙子.

124) 『承政院日記』 책431, 肅宗 32년 7월 癸酉.

125) 『承政院日記』 책894, 英祖 15년 7월 庚戌.

월에는 금주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과천현감 徐好修를 도 3년으로 율봉역에 정배하였다.¹²⁶⁾ 그는 5월에 放送되었다.¹²⁷⁾ 영조는 조선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금주령을 시행했다. 백성의 주식인 쌀이 술을 빚는데 쓰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영조는 금주령을 어기는 사람을 최대 참형에 처할 정도로 중죄로 다스렸다.¹²⁸⁾

정조 7년 6월에는 呂萬永을 도 3년으로 율봉역에 정배하고,¹²⁹⁾ 10월에는 崔雲翯를 도 2년 반으로 율봉역에 정배하였다.¹³⁰⁾ 동왕 8년 11월에는 具明謙을 도 2년으로 율봉역에 정배하고,¹³¹⁾ 동왕 9년 2월에는 李翺晉을 도 2년으로 율봉역에 정배하였다.¹³²⁾ 동왕 11년 4월에는 예빈시 참봉 鄭濂을 도 3년으로 율봉역에 정배하였는데,¹³³⁾ 5월에 放送되었다.¹³⁴⁾ 동왕 13년 7월에는 金興澤이 馬牌를 분실한 죄로 도 3년으로 율봉역에 정배가 결정되었으나,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되었다.¹³⁵⁾ 마패를 분실하여 처벌을 받은 귀한 자료이다. 使行을 마치고 復命한 후에는 마패를 尙瑞院에 반납해야 되며, 왕권의 상징인 마패를 분실하면 가중처벌 되었다.¹³⁶⁾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雍正元年正月金字號二馬牌』의 구멍에는 당시에 마패를 묶었던 끈이 남아 있다. 이 끈을 사용하여 마패를 허리에 차게 된다. 이 때문에 몸을 움직이던가 말이 움직일 때에는 마패와 끈이 서로 마찰이 되므로 마패의 구멍에는 사용 흔적이 남게 된다. 이는 마패의 주조 형태, 마패 표면에 생긴 녹의 상태, 字號의 형태와 함께 마패의 진위를 판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¹³⁷⁾ 간혹 분실되었

126) 『承政院日記』 책1229, 英祖 40년 4월 庚戌.

127) 『承政院日記』 책1230, 英祖 40년 5월 戊寅.

128) 『英祖實錄』 권100, 英祖 38년 11월 戊寅.

129) 『承政院日記』 책1534, 正祖 7년 6월 甲戌.

130) 『承政院日記』 책1543, 正祖 7년 10월 丁丑.

131) 『承政院日記』 책1571, 正祖 8년 11월 壬申.

132) 『承政院日記』 책1577, 正祖 9년 2월 辛丑.

133) 『承政院日記』 책1624, 正祖 11년 4월 癸亥.

134) 『承政院日記』 책1625, 正祖 11년 5월 癸酉.

135) 『承政院日記』 책1661, 正祖 13년 7월 戊申.

136) 『續大典』 권4, 兵典 驛馬. 마패를 파손한 자는 杖 90, 徒 2년이다(『新補受教輯錄』 兵典 驛路).

137) 閔德植, 2003, 「馬牌의 形態와 機能」, 『馬事博物館誌』(마사박물관), 47쪽.

던 마패가 출토되는 일이 있다.¹³⁸⁾ 또 동왕 14년 4월에는 전 덕천군수 申 曦을 도 3년으로 율봉역에 정배하고,¹³⁹⁾ 동왕 15년 1월에는 宋持敬을 도 1년으로 율봉역에 정배하고,¹⁴⁰⁾ 동왕 17년 10월에는 전 비안현감 鄭東杓를 도 3년으로 율봉역에 정배하였다.¹⁴¹⁾

순조 2년 5월에는 金熙朝를 도 1년 반으로 율봉역에 정배하고,¹⁴²⁾ 동왕 7년 12월에 徐永輔를 도 2년 반으로 율봉역에 정배하고,¹⁴³⁾ 동왕 8년 8월에 權煥을 도 2년으로 율봉역에 정배하고,¹⁴⁴⁾ 동왕 12년 5월에 柳基恒을 도 1년 반으로 율봉역에 정배하고,¹⁴⁵⁾ 동왕 14년 11월에 徐章輔를 도 1년 반으로 율봉역에 정배하였다.¹⁴⁶⁾

헌종 11년 12월에는 金益根을 도 2년으로 율봉역에 정배하였다.¹⁴⁷⁾

철종 1년 4월에는 裴相奎를 도 3년으로 율봉역에 정배하고, 李允植을 도 2년 반으로 영동현 會洞驛에 정배하였다.¹⁴⁸⁾ 또 동왕 3년 7월에 金彝淳을 도 2년으로 율봉역에 정배하고,¹⁴⁹⁾ 동왕 5년 9월에 趙有淳을 도 2년 반으로 율봉역에 정배하였다.¹⁵⁰⁾

徒罪人들을 정배할 때는 의금부에서 왕의 윤허를 받아 羅將이나 京驛子를 보내서 율봉역까지 押領(호송)하였다. 이들 도죄인들은 助役人인 日守(조선후기는 사령)로 예속시켰다가 徒刑이 만기되면 놓아 보냈으며,¹⁵¹⁾ 역에서 잡무인 給事(使喚)의 일을 맡았다.¹⁵²⁾

138) 閔德植, 1999, 「華城郡 靑園里出土 雍正八年銘五馬牌」, 『年報』 8(忠北大學校 博物館), 63~102쪽.

139) 『承政院日記』 책1677, 正祖 14년 4월 庚午.

140) 『承政院日記』 책1686, 正祖 15년 정월 丙申.

141) 『承政院日記』 책1722, 正祖 17년 10월 乙亥.

142) 『承政院日記』 책1852, 純祖 2년 5월 辛巳.

143) 『承政院日記』 책1938, 純祖 7년 12월 丁酉.

144) 『承政院日記』 책1953, 純祖 8년 8월 辛酉.

145) 『承政院日記』 책2015, 純祖 12년 5월 己丑.

146) 『承政院日記』 책2052, 純祖 14년 11월 戊申.

147) 『承政院日記』 책2445, 憲宗 11년 12월 辛卯.

148) 『承政院日記』 책2504, 哲宗 1년 4월 辛卯.

149) 『承政院日記』 책2532, 哲宗 3년 7월 癸亥.

150) 『承政院日記』 책2559, 哲宗 5년 9월 戊辰.

151) 『世宗實錄』 권119, 世宗 30년 3월 己酉.

9. 驛村

역촌은 고려의 것을 잇거나, 신설된 역참은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역참의 곁에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도적들이 행려자와 한양으로 올라가는 각도의 貢物, 각 官司의 奴婢身貢을 약탈하여 그 폐단이 많게 되자 백성들을 역 근방에 모여 살게 하였다고 한다.¹⁵³⁾

己卯帳籍(영조 35년, 1759)을 바탕으로 한 『輿地圖書』에는 울봉역이 있던 울봉리에는 호구 162호에 인구는 남자 252명, 여자 237명으로 총 489명이며, 이 중에서 驛民(驛戶, 驛屬人, 驛人)은 驛吏 240명, 驛奴 102명, 驛婢 30명, 內下吏 43명, 知印 16명으로 모두 431명으로 驛民層의 인구수에 대한 비율이 88%를 차지하였다.¹⁵⁴⁾ 또 같은 청주목의 雙樹驛이 있던 쌍수리는 호구 22호에 인구는 남자 27명, 여자 30명으로 총 57명이며, 이 중에서 역민은 역리 40명, 역노 10명, 역비 7명으로 모두 57명으로 비율은 100%이다. 猪山驛이 있던 저산리는 호구 14호에 인구는 남자 15명, 여자 16명으로 총 31명이며, 이 중에서 역민은 역리 30명, 역노 7명, 역비 3명으로 모두 40명으로 비율은 129%이다. 이들 역민층은 역촌(역말)에만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소수이기는 하나 여러 面里에 산재하여 거주하였다.¹⁵⁵⁾ 하여튼 울봉역이 있던 울봉리는 역민층의 인구수에 대한 비율이 88%로 역촌의 성격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한편 울봉리 주변의 德坪里가 남자 26명, 여자 35명, 斜川里가 남자 75명, 여자 68명, 善才洞里가 남자 17명, 여자 13명인 것과 비교하여 울봉리가 大里¹⁵⁶⁾였던 것은 역촌이었기 때문이었다.

울봉역과 이웃하여 역대골유적에서는 주거지 16기,¹⁵⁷⁾ 당골 I 유적에서

152) 『世宗實錄』 권28, 世宗 7년 4월 庚申.

153) 『燕山君日記』 권47, 燕山君 8년 12월 丁未.

154) 『輿地圖書』 淸州牧 坊里·驛院.

155) 崔虎, 1985, 「朝鮮後期 驛村에 대한 一考察-丹城縣 戶籍大帳을 중심으로-」, 『中央史論』 4(중앙대학교 사학연구회), 135~137쪽.

156) 五家作統에 대한 事目에서는 5家를 1統으로 삼고, 5통~10통은 小里, 11통~20통은 中里, 21통~30통까지는 大里라고 하였다(『備邊司謄錄』 책 31, 肅宗 원년 9월 26일).

157)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淸州 栗陽洞遺蹟 I』, 45~65쪽.

는 주거지 3기가 조사되고,¹⁵⁸⁾ 당골 II유적에서는 주거지 53기가 조사되었다.¹⁵⁹⁾ 이들 주거지는 대부분 구릉 경사면에 조성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대부분 말각방형이고, 잔존깊이는 10~88cm였다. 내부시설로 구들, 아궁이, 배연부 등을 갖추고 있었다. 대부분의 주거지는 벽면에 밀착된 아궁이를 설치하였고, 온돌을 갖춘 주거지는 당골 I-2호, 당골 II-23호, 당골 II-41호 뿐이었다. 전체적인 조성시기는 15세기 전반에서 16세기까지였다.¹⁶⁰⁾ 또 당골 II유적에서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2기의 건물지도 조사되었다. 1호 건물지는 52호 주거지가 폐기된 후 그 위에 조성되었는데 모두 4개의 적심석이 남아 있었다. 건물지의 크기는 길이 340cm, 너비 240cm로 평면이 장방형의 단칸 건물지였다. 2호 건물지는 건물지의 기단이나 초석은 모두 유실되고 적심 5개가 잔존하였다. 건물지의 크기는 길이 420cm, 너비 210cm로, 정면 2칸, 측면 1칸이었다.¹⁶¹⁾ 이로써 보면 서로 인접하여 당골 II유적을 중심으로 상당규모의 조선시대 집단취락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곳은 울봉역과 관련된 역민들의 공동체적 집단취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¹⁶²⁾ 당골 II유적은 울봉역에서 약 400m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역촌의 거리를 가늠하여 볼 수가 있다.

驛役을 부담하는 역민이 모여 사는 공동체적 성격을 띤 집단취락인 역촌의 주민구성은 뚜렷한 同族部落의 성격을 띠었고, 常·賤戶가 대부분이고 兩班戶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¹⁶³⁾ 역역을 담당 또는 助役하는 한편 타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전혀 없는 순수한 농업취락의 성격을 띠었고, 동질집단으로 구성된 만큼 배타적 단결심이 강하고, 마을의 행정도

158)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淸州 栗陽洞遺蹟 II』, 100~103쪽.

159)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181~249쪽.

160)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앞 책, 102쪽.

161)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앞 책, 181~183쪽.

162)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위 책, 134쪽.

163) 18세기 말이 되면 역촌의 주민구성에 있어서 職役上의 양반 또는 准兩班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또 역민층보다는 비역민층의 수가 많게 된다(崔虎, 1985, 앞 글, 148쪽). 즉 18세기 후반이후 역리를 비롯한 역민이 전반적으로 감소되며, 양반 또는 준양반층의 증가는 재정난의 타개를 위한 천민까지의 納粟授職(影職)과 관련이 있으며, 驛役의 과중으로 역노비도 격감과 소멸현상이 나타나고, 역촌도 民村化하여가는 변화가 일어났다.

자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¹⁶⁴⁾ 또 馬堂(馬神堂)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기도 하였는데,¹⁶⁵⁾ 이곳 당골이라는 명칭도 여기서 유래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편 철종 8년에는 충청좌도 암행어사 金益容이 울봉역에 행차하였을 때 어사의 종들이 울봉역의 역촌에 나타나자 역리들이 어사 下隸들의 노자 묶으로 돈을 준 일이 문제가 되었다. 김익용은 이일로 인해 대간의 탄핵을 받아 廢錮되고, 長興府로 유배되었다.¹⁶⁶⁾

Ⅲ. 울봉도

1. 屬驛

세종 14년에는 울봉도 소관은 雙樹·德留·金沙·楮山·台郎·長楊·時化 등 7역이었고, 增若道는 嘉禾·化仁·原巖·舍林·土坡·順陽·會同·新興·田民 등 9역이었으며, 驛道에는 驛丞 1명이 맡아 관리하였다.¹⁶⁷⁾

세조 3년 9월에는 栗峰道·增若道の 모든 역과 전에 경기·충청좌도 程驛察訪 소관이던 괴산의 仁山驛과 음성의 甘門驛을 한 도로 통합하여 증약도라 하고, 驛丞을 혁파하고 정역찰방을 두었다.¹⁶⁸⁾

세조 6년 2월에는 병조의 건의에 따라 울봉도 소관인 청주목의 栗峰驛·雙樹驛·楮山驛, 진천현의 台郎驛·長楊驛, 문의현의 德留驛, 청안현의 時化驛, 連原道 소관인 충주목의 連原驛·丹月驛, 연풍현의 安富驛·新豐驛, 음성현의 用安驛·坎原驛, 괴산군의 仁山驛, 黃江道 소관인 청풍군의 黃江驛·水山驛·安陰驛, 단양군의 長林驛·令泉驛, 영춘현의 吾賜驛, 제천현의 泉南驛 등 총 27역을 한 도로 하고 울봉도라 칭하여 京畿忠淸右道察訪으로서 이를 맡게 하였다. 또 增若道 소관의 옥천군의 增若驛·加禾驛·土禾驛·

164) 崔虎, 1985, 위 글, 144~146쪽.

165) 裴基憲, 1992, 위 글, 60쪽.

166) 『承政院日記』 책2603, 哲宗 9년 5월 甲午 ; 『備邊司謄錄』 책245, 哲宗 9년 5월 20일.

167)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168) 『世祖實錄』 권9, 世祖 3년 9월 癸酉.

順陽驛, 회덕현의 田民驛, 영동현의 會同驛, 보은현의 原巖驛-含林驛, 황간현의 新興驛과 울봉도 소관인 연기현의 金沙驛 등 22역을 합하여 한 도로 하고, 成歡道라 칭하여 增若道察訪으로서 이를 맡게 하였다.¹⁶⁹⁾

세조 8년 8월에는 栗峰驛, 雙樹驛, 猪山驛, 長楊驛, 台郎驛, 時化驛, 增若驛, 嘉禾驛, 土坡驛, 順陽驛, 化仁驛, 田民驛, 德留驛, 會同驛, 新興驛, 含林驛, 原巖驛 등 17역을 栗峰驛道로 하고 울봉역도찰방을 두었다.¹⁷⁰⁾ 울봉도는 전체 41개 驛道の 하나로 17개 역을 거느리고 있었다. 울봉도는 세종대의 8개 역에서 17개 역으로 증설된 것이다. 이처럼 충청도 左道の 울봉도에 17역을 둔 체제는 『經國大典』에서 법제화된 이후,¹⁷¹⁾ 1894년 갑오경장으로 驛站制가 폐지되고 郵遞司가 신설될 때까지 유지되었다.¹⁷²⁾

2. 驛路

조선시대에 울봉역을 통과하는 역로는 漢江渡(한강나루)-良才-樂生(이상 廣州)-駒興-金嶺(이상 龍仁)-佐贊-分行(이상 竹山)(이상 良才道)¹⁷³⁾-長楊-台郎(이상 鎭川)-栗峰-雙樹(이상 淸州)-德留(文義)-增若-嘉和¹⁷⁴⁾-土坡¹⁷⁵⁾(이상 沃川)-會同(永同)¹⁷⁶⁾-新興(黃澗)¹⁷⁷⁾(이상 栗峰道)-(秋風嶺)-秋豐(金山)(金泉道)으로 이어졌다. 추풍령을 넘은 역로는 金山, 星州, 昌寧, 靈山, 漆原을 거쳐 金海에 이른다.¹⁷⁸⁾ 즉 金泉道, 自如道로 하여 김해에 이르렀다. 이처럼 울봉역을 지나는 역로는 한양을 출발하여 良才道-栗峰

169) 『世祖實錄』 권19, 世祖 6년 2월 壬子.

170) 『世祖實錄』 권29, 世祖 8년 8월 丁卯.

171) 『經國大典』 권1, 吏典 外官職.

172) 『新增東國輿地勝覽』淸州牧 驛院 ; 『輿地圖書』淸州牧 驛院 ; 『萬機要覽』軍政篇 1, 驛遞 各道 屬驛 ; 『大東地志』忠淸道 驛站 ; 『增補文獻備考』 권126, 兵考18 驛遞. 인조 10년경에 만들어 졌다고 하는 『湖西勝覽』에 長命驛이 울봉도 소속이라고 하였다 하나,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이다.

173) 『增補文獻備考』 권126, 兵考18 驛遞.

174) 가화역은 오늘날의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에 있었다.

175) 토과역은 고려시대 土峴驛이며, 오늘날의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에 있었다.

176) 회동역은 고려시대의 역으로, 오늘날의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에 있었다.

177) 신흥역은 오늘날의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에 있었다.

178) 趙炳魯, 2002, 앞 책, 朝鮮時代 驛路圖.

道-金泉道-自如道를 거쳐 김해에 이르는 金海路였다. 한편 울릉도 중에서 김해로가 지나는 장양역에서 신흥역까지의 역로는 中路였다.¹⁷⁹⁾ 한편 울릉역에서 내려가는 전술한 추풍령로는 고려시대에 이미 구축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또 고려시대에 南京(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은 忠淸州道の 長楊驛에서 竹州(죽산) 分行驛·佐贊驛, 龍狗(용인) 金領驛, 廣州 安業驛,¹⁸⁰⁾ 果州(과천) 良梓驛을 거쳐 올라가는 廣州道가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¹⁾

임진왜란 때도 동래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세 방향으로 한양을 향하여 북진하였는데, 右道는 金海를 경유하여 星州 茂溪縣을 따라 강을 건너 知禮, 金山을 거쳐 추풍령을 넘어서 永同으로 하여 淸州로 진출하였다.¹⁸²⁾ 또 통신사의 回路에는 驛路 주변의 민폐를 줄이기 위해 正使는 조령로, 副使는 추풍령로, 從事官은 죽령로로 나누어서 귀환하였는데, 부사는 釜山·密陽·靈山·昌寧·星州·金山·永同·淸州·鎭川·竹山·陽智·龍仁·板橋를 거쳐 入京하였다.

한편 조선은 한양천도를 계기로 한양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였는데, 이때에 설정된 幹線交通路는 한양에서 結節하는 X자형 패턴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었다. 한양에서 서북지방으로 뻗은 도로를 西路라 하고 의주를 종착지로 삼고, 동북지방으로 향하는 도로는 北路라 하고 종점은 함경도의 西水羅로 정하고, 충청도 서쪽을 지나 전라도로 연결되는 도로를 三南路라 하였는데, 강진을 종점으로 하였으나 여기서 제주까지는 뱃길로 이어지고, 한양에서 충청도의 동북부지방을 거쳐 경상도의 동래로 뻗은 길은 嶺南路라고 하여 釜山浦가 종점이었다.¹⁸³⁾ 추풍령을 넘는 김해로는 영남대로와 삼남대로 사이의 間路였다.

이중에서 영남대로(東萊路)의 노선은 漢江渡-良才-板橋¹⁸⁴⁾-龍仁-陽智-

179) 『續大典』 권4, 兵典 驛路 ; 『大典會通』 권4, 兵典 驛路. 나머지는 小路였다.

180) 안업역은 조선시대의 낙생역이다(『世宗實錄地理志』 廣州牧).

181) 『高麗史』 권82, 志36 兵2 站驛.

182) 『宣祖修正實錄』 권26, 宣祖 25년 5월 庚申.

183) 崔永俊, 1990, 『嶺南大路-韓國古道路의 歷史地理的 研究-』(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31~132쪽.

竹山-石院-關村-無極驛¹⁸⁵⁾-昆在-天谷-毛老院-崇善-用安驛-忠州-鳥嶺으로 이어졌다.¹⁸⁶⁾ 『大東輿地全圖』와 『大東地志』 程里考에서의 경상도 지역의 영남대로는 鳥嶺-聞慶-幽谷-尙州-善山-漆谷-大丘-淸道-密陽-梁山-東萊로 이어진다. 이처럼 영남대로의 역로는 한양으로부터 良才道·連原道·幽谷道·金泉道·省峴道·黃山道 등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본 김해로는 한양에서 출발하여 영남대로와 갈라져 조령로 대신 추풍령로를 통과하는 것이다. 김해로가 영남대로와의 분기점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大東輿地圖』에는 白岩, 分行驛¹⁸⁷⁾을 지나 죽산에서 갈라진다고 하였다. 또 『大東地志』 程里考에서는 이보다 북쪽인 陣村¹⁸⁸⁾에서 분기한다고 하고, 백암에서 진촌까지 10리(옛 10리는 5.1km), 진촌에서 碑立巨里까지 10리라고 하였다. 『增補文獻備考』에도 분기점을 진촌이라고 하고, 진촌에서 죽산까지 20리, 죽산에서 광혜원까지 20리, 광혜원에서 장양역까지 20리라고 하였다.¹⁸⁹⁾ 실제로는 분행역을 거쳐 비평거리에서 분기한다고 한다.¹⁹⁰⁾

한편 임진왜란으로 영남대로가 피해를 입게 되고, 임란 후 경상감영이 상주에서 대구로, 충청감영이 충주에서 공주로 옮겨지면서 대구·추풍령·청주·천안·수원을 경유하는 새로운 교통망이 형성되어, 한반도 동남부의 영남대로와 서남부의 삼남대로가 중간에서 結節하는 人字型을 이루게 되었다.¹⁹¹⁾ 이럴 경우 추풍령에서 황간·영동·赤登¹⁹²⁾·增若驛·문의·청주·鵲川

184) 민덕식, 2013, 앞 글, 151~192쪽.

185) 石院, 關村, 無極驛은 오늘날 陰城郡 笏極面 關城里 지역이다(정기범, 「조선후기 음성지역 장시 연구」, 2008, 『장시와 교통체계』(민속원), 460쪽).

186) 한편 奉化路(죽령대로)는 흥인문-잠실-광주-이천-음죽-장호원-가흥-충주-황강역-수산역-단양-죽령-풍기-봉화로 이어졌는데, 영남대로와 충주읍치 인근에서 만날 듯이 접근하기 때문에 길을 바꿀 수가 있었다(조혁연, 2015, 「조선후기 교통로와 영남선비 상경기-충주지역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 2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41쪽).

187) 분행역은 오늘날의 경기도 안성시 이죽면 매산리에 위치하였다.

188) 진촌은 오늘날의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에 위치하였다.

189) 『增補文獻備考』 권24, 輿地考12 道里.

190) 韓柱成, 2005, 「청주지역의 옛 도로망에 관한 一考察」, 『地理學研究』 24(국토지리학회), 42쪽.

191) 崔永俊, 1990, 앞 책, 163쪽.

(鵲院¹⁹³)·薪院倉(薪院¹⁹⁴)·목천·천안(삼거리)으로 이어진다.¹⁹⁵ 청주에서 이 길은 鵲川大路로 신원창까지 30리, 목천 松亭界까지 55리였다.¹⁹⁶ 이 길 중에서 청주에서 신원창까지를 좀 더 살펴보면 청주읍성에서 서문을 지나 鳳鳴里(과상미, 果商山)¹⁹⁷·花溪里·上新里·新垆里에서 까치내를 건너 신원창(倉里)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길은 육지측량부의 1914년 측도 5만분의 1 지형도에도 聯路로 표시되어 있다.

『海東地圖』¹⁹⁸에는 울봉역 인근에서 진천과 청안으로 가는 길이 나 있다. 육지측량부의 1914년 측도 5만분의 1 지형도에도 청주에서 栗峴을 지나 內德里에서 진천과 충주로 가는 길이 갈려져 있다. 진천 길은 울봉역에서 梧根津(八結津)¹⁹⁹을 거쳐 台郎驛으로 통하는 역로였다.²⁰⁰ 태랑역

192) 영동군 이원면 원동리에 있으며, 영동의 회동역에서 금강의 赤登津을 건너 옥천의 토과역으로 이어진다.

193) 까치내는 겨울에는 다리를 이용하고, 여름에 비가 내려 물이 불으면 나룻배를 이용하였다.

194) 薪院은 옥산면 신원에 있었고, 원간 평균 직선거리 약 25리에 비하면 鵲院과는 너무 가까운데, 이는 장명역의 역로인 천안, 취성산, 황골고개, 강정, 백현(오창면 백현리), 오근장, 청주로 이어 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韓柱成, 2005, 앞 글, 38쪽). 이 길은 梧根場에서 청안으로도 이어진다.

195) 『增補文獻備考』 권24, 輿地考12 道里.

196) 『輿地圖書』 淸州牧 道路.

197) 청주읍성의 서문에서 봉명리로 통하는 길은 서문다리를 건너 사직동고개에서 옛 청주고등학교 옆으로 통하는 길로 추정된다. 전에도 노퍽이 약 3m 정도로 꽤 넓었는데, 이는 이 길이 목천으로 하여 한양으로 통하는 대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960년대 초에 걸어본 이곳 과상미에서 까치내까지의 옛 길은 비교적 순탄하였다.

198)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海東地圖』 上 淸州牧圖, 104쪽.

199) 吳根川에는 겨울에는 나무다리를 설치하고, 여름에 비가 와서 물이 불어지면 나룻배를 이용하였다. 八結의 收稅로 운영되었다고 전하는 吳根津(八結津)에는 일제강점기 때 다리를 놓았는데, 이 다리는 6:25 때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폭격되었으며, 이 때 광장한 폭음과 함께 갑자기 방문이 열린 기억이 생생하다. 진천 봉화산전투를 치루고 후퇴하던 김석원장군이 팔결천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어서 청주 시내에 대한 폭격이 시작되었는데, 김석원장군이 팔결천에서 막고 있어 북한군은 아직 시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내에는 피난민들이 많았다. 우리도 문의 방면으로 가기 위해 시내에 있었는데,

은 고려시대 堆糧驛인데, 퇴량역(오늘날의 玉城里)에서 북쪽 8리로 옮겨진 것이다.²⁰¹⁾ 오늘날의 문백면 태락리이다. 역시 동쪽에 있는 마을이 다랭이인데, 이곳에 큰 역원이 있어 그 이름을 태락역이라 부르던 것이 다랭이가 되었다고 한다.²⁰²⁾ 역참 옆에는 台郎院이 있었다.²⁰³⁾ 태량역에서는 土石里의 文案山城²⁰⁴⁾과 봉화산 사이의 높은 고개(잣고개) 길을 넘어 진천현 관아(현 상산초등학교)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육지측량부의 1914년 측도 5만분의 1 지형도에는 이등도로로 표시되어 있다. 또 태락리에서 豆城·文德里·院德里를 거쳐 진천현 관아로 통하는 길은 진천으로 가는 지름길로, 필자가 豆城을 조사할 때 답사하여 보니 비교적 평탄한 편이었다. 두성에는 삼국시대의 두성이라는 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길도 옛날부터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²⁰⁵⁾ 진천현 관아에서 思美里·中山里·中伏里를 거쳐 고려시대 長楊驛이었던 이월면 장양리의 長陽驛에 이른다. 이곳이 울봉도의 시작점이다.

울봉역 서쪽 약 950m에서 酒城里(수름재)·杏亭里(살구정)²⁰⁶⁾·源通里

폭격을 피하기 위해 울부짖으며 당황해 하던 피난민들의 모습, 청주시외 버스터미널(본정 길에서 옛 청주여고로 가는 길 옆)이 폭격되는 모습, 폭격으로 가족들이 헤어져 가족들을 에타게 찾아 헤매던 피난민들의 애절한 모습들이 눈에 선하다.

200) 이 길은 梧根津大路로 北倉(梧根倉)까지가 32리, 진천 項谷界까지가 32리였다(『輿地圖書』淸州牧 道路).

201) 『新增東國輿地勝覽』鎭川縣 驛院.

202)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 1997, 『鎭川郡 地名誌』, 203쪽.

203) 청주에서 진천로에는 北院에서 金院(외평리 원터, 外坪을 쇠내라고 부름), 吳根院(원리)을 거쳐 이곳 태량원으로 하여 진천현 읍치 남쪽의 時泰院(원덕리 원동), 廣惠院으로 이어졌다. 이들 원들을 지나가는 역로는 중로이므로, 院主에게는 90負의 院主田이 지급되었다(『經國大典』 권2, 戶典 廩田).

204) 문안산성은 산정식산성으로 청주 방면에서 오는 길과 목천 방면에서 오는 길을 막기 위하여 축조된 것인데, 이 일대 산성의 분포로 보아 차령산맥을 국경으로 하고 있던 백제를 의식한 것이다. 신라가 진천의 거점성인 都堂山城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堡壘였다.

205) 오창에서 진천으로 가는 길은 원고개를 넘는 길, 옥성리에서 양천산을 넘는 길, 이곳 두성을 지나는 길, 잣고개를 넘는 길이 있었다. 이 중에서 원고개 길은 오창에서 원리, 원고개, 은탄리, 梨峙, 구곡리(농다리 부근)을 거쳐 진천 읍내로 가는 길이다.

(원통이)·桃源里·細橋里(가는다리)·椒井里(椒井院)²⁰⁷⁾·淵亭里를 거쳐 청안으로 가는 길이 청주에서 청안으로 가는 청안로였다.²⁰⁸⁾ 육지측량부의 1914년 측도 5만분의 1 지형도에는 達路로 표시되어 있다. 울봉역에서 직접 증평을 미암리의 시화역으로 가려면, 세교리에서 북이면 靈下里의 老姑城, 釜淵里의 산성으로 하여 증평을 거쳐 가게 된다. 이 길은 이들 산성이 삼국시대의 산성인 만큼 오래된 길이였음을 알 수가 있다. 삼국시대에는 노고성에서 세교리·풍정리·묵방리·구성리·주성리를 거쳐 우암산성으로 연결되는 길을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길은 예전에도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한편 노고성에서 세교리를 거쳐 초정리에 이르면 청안방면에서 오는 길과 합쳐지는데, 여기서 謳羅山城(九女城) 옆 고개 길(이티고개)을 넘으면 미원면 대신리가 되고,²⁰⁹⁾ 세교리에서 관동리를 거쳐 온 길과 이어진다. 여기서 미원을 거치면 보은 三年山城으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신라는 이곳에 구라산성을 축성했다고 볼 수가 있다. 하여튼 이들 부연리의 산성·노고성·구라산성은 도안의 柵城山城²¹⁰⁾에 주둔하던 고구려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구려군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²¹¹⁾

206) 이곳에는 신장로가 나기 이전의 옛 길이 남아 있다.

207) 청주에서 청안로에는 청주의 北院에서 이곳 椒水 옆의 초정원을 거쳐 직접 청안현 읍치로 이어진다. 초수와 관련된 원이다. 한편 세종은 당뇨의 합병증인 안질을 치료하기 위해 세종 26년 1월에 內瞻寺尹 金佺之를 보내 이곳에 行宮을 세웠다(『世宗實錄』 권103, 世宗 26년 정월 丁丑).

208) 이 길은 栗峰小路로 울봉역까지 7리, 청안 帶水里界까지 42리였다(『輿地圖書』 淸州牧 道路).

209) 필자는 1972년에 이 嶺路를 걸어 보았는데, 이미 길을 넓혀 놓아 옛 길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행상인들은 4·9일에 열리는 米院場(미원면 미원리)을 보고 나서 다음날에 열리는 세교리의 雙橋場을 보기위해 이 嶺路를 이용하였다(韓柱成, 2005, 앞 글, 47쪽). 1920년경 쌍교장(구장터)이 없어지고 대신 열렸던 內秀場(삼봉장)을 보기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수장은 북일면과 북이면의 주민들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작은 장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미원장을 본 행상인뿐만 아니라 청안장을 본 행상인들도 참여하였다. 내수장이 마산리에서 열린 것은 내수장의 開場期부터였다.

210) 柵의 음은 뉴와 추가 있어 추성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성산성·뉴성산성이라고 불려온 것을 보면 뉴성산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편 울봉역은 태랑역으로 가는 역로에서 약 2,000m 거리에 위치하였다. 영남대로상의 역촌 가운데 반 정도는 도로변에 입지하였으나 나머지는 도로에서 수백 또는 수천 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柳馨遠은 역은 반드시 도로에 임하여 있어야 하는데, 많은 역이 도로에 임하지 않고 3~4리나 떨어져 있으니, 이는 역을 설치한 본의가 아니며, 이러한 역들은 옮겨서 역 사이를 30리²¹²⁾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²¹³⁾

梨峙小路에 있던 猪山驛²¹⁴⁾은 고려시대부터 있던 역으로, 猪山城(猪山 혹은 恩積山, 해발 206m) 남쪽에 있었는데 청주에서 燕岐로 가는 역이다.²¹⁵⁾ 우암산성에서 父母山城, 저산성을 거쳐 彌串江(미호천)을 건너 唐山城(城山城)으로 이어지는 길은 삼국시대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통로였다. 연기의 據點城인 당산성에서 곧바로 웅진(공주)으로 통하였기 때문이었다.²¹⁶⁾ 이곳 저산역의 설치도 저산성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봉역에서 강내면 저산리의 저산역으로 가려면 청주읍성의 북문(玄武門)과 서문(淸秋門)을 지나 서문 밖 무심천을 건너게 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이곳에 신교가 있었다고 하였다. 西門外橋, 서문다리라고 불려졌던 이 다리는 겨울이면 설치하였다가 여름이면 철거하는 나무다리였다. 서문에서 司倉里·盤松里·虎岩里·上鉢里·猪山里·松龍里 길이 역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울봉역에서 務農亭兩南大路²¹⁷⁾에 있던 쌍수역으로 가려면 청주읍

211) 만약 부연리의 산성과 노고성이 무너지면 청주의 거점성인 우암산성이 위협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략상 중요한 것이다.

212) 태종 14년 10월에 10리에 小驛, 30리에 大驛를 설치하여 1息으로 삼았다(『太宗實錄』 권28, 太宗 14년 10월 丁亥). 역 사이가 1站이므로, 30리를 가자면 한참이 걸리게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에 150리를 걷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213) 『礪溪隱錄』 권22, 兵制後錄 郵驛.

214) 역사의 대지면적은 144평이었다고 한다(韓柱成, 2005, 앞 글, 37쪽). 저산역과 같은 屬驛은 역리로서 驛戶를 통솔하고, 사객을 접대하는 등 업무를 관장하는 驛長(長田 2결)과 部長(副長田 1결 50부)이 있었고, 역사가 없는 속역도 있었다.

215) 梨峙小路는 저산역까지 30리, 연기 新院界까지 38리, 전의 深川界까지 54리였다(『輿地圖書』 淸州牧 道路).

216) 조선시대에도 이 길은 청주에서 공주로 가는 監營路였다.

성의 북문과 남문(淸南門)을 지나 남문 밖 무심천의 大橋(淸盡院)를 건너게 된다. 南石橋·淸南橋·남문다리라고 불렀던 이 다리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대로상에 있었기 때문에 석교를 설치하였다. 쌍수역은 고려시대부터 있던 역으로 남일면 쌍수리에 있었다. 역의 主山은 金鷄山인데, 세조가 복천사로 행행하며 피반령 밑에서 駐蹕할 때 세조가 금계산을 바라보니 金鷄가 飛舞를 하는 모습을 보고 산위에 절을 짓게 하였는데, 후인들이 이 산을 금계산, 절을 王庵이라고 불렀다는 일화가 전한다.²¹⁸⁾ 쌍수역이 피반령로의 길목인 館基里(관터) 부근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아, 역로는 남문에서 粉坪里·池北里·관기리(쌍수역)²¹⁹⁾·高隱里(삼거리)·省南里·문의현 관아(전 문의초등학교)·德留驛(고려시대 燕山驛 추정)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덕유역이 있던 문의 덕유리에서는 荊角津을 건너 회덕을 거쳐 옥천 增若驛으로 가게 된다. 대청댐 수력발전소 부근에 있던 下垆里와 芝茗里 사이의 금강을 荊江이라고 불렀으며, 나루를 형각진(利遠津)이라고 하였는데, 이곳에 荊角院이 있었다.²²⁰⁾ 여기서 三山里·孝坪里·馬山里·龍溪里·新上里를 거쳐 고려시대부터 있던 군북면 증약리의 增若驛에 이르게 된다. 필자가 대청댐수물지역 발굴조사에 참여하여 본 바로는 佳湖里 길도 이용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즉 덕유역에서 熊谷里·新垆里·後谷里(뒷골)·阿德里(아득이)·佳湖里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 길은 매우 평탄했으며, 지금은 물속에 잠겨 있다. 가호리의 나루에서 금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곳 나루에서는 나룻배를 이용하였으며, 나루 아래쪽의 여울에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걸어서 건너기도 하였다. 『大東輿地圖』에는 금강을 건너면 청주목의 월경지인 周岸(주안면)이라고 하였는데, 옛 周岸郷이 있던 곳이다. 이곳 上倉(周岸倉)에서 丸亭里·恒谷里를 거쳐 증약역에 이른다. 『

217) 務農亭은 南一面 池北里에 있는데, 고려 太尉 韓蘭이 농사를 힘써 하던 장소에 정자를 짓고 무농정이라 扁名한 것이다(淸州市誌編纂委員會, 1961, 『淸州誌』, 69~70쪽).

218) 『輿地圖書』淸州牧 山川.

219) 쌍수역에서 斗山(말미)를 거쳐 피반령을 넘는 길이 회인대로이다.

220) 청주의 淸盡院에서 仁濟院(분평리 원평), 德山院(가산리 원동), 廣濟院(미상)을 거쳐 형각원으로 이어졌다. 이들 역로도 중로였다.

『大東輿地圖』에는 가호리 나무의 금강을 荊江이라고 하고, 여기서 증약역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 『大東地志』 程里考에서는 문의에서 형강까지 20리, 형강에서 증약역까지 20리라고 하였다. 즉 김정호는 가호리길을 덕유역에서 증약역으로 가는 역로로 본 것이다.

청안의 時化(和)驛은 도안의 뉴성산성 아래에 있었는데, 청안에서 長候院²²¹⁾·礮灘·調風院(청주목의 월경지인 調豐部曲, 용기리 조풍이)²²²⁾·草坪을 거쳐 진천현의 관아나 장양역으로 이어진다. 초평에서 진천으로 가는 길에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마애불이 있는 것을 보면 이 길이 오래된 길임을 알 수 있다. 시화역이 청안현 관아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태종 5년 이전 道安縣의 관아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와 같은 추정이 옳다고 한다면 당시의 역로는 진천현 관아나 장양역에서 도안현 관아를 거쳐 淸塘縣 관아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화역이 있는 도안에서는 頭陀山城 옆의 고개를 넘어 초평면 芝田으로 하여 진천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다. 필자가 頭陀山城을 조사할 때 이 嶺路를 걸어 보니 소로길로 계곡이 깊고 길은 길이었는데, 지름길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도보로 많이 이용하였을 것이다.²²³⁾ 이는 이곳에 있는 두타산성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회덕의 貞(田)民驛은 고려시대의 貞民驛으로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었는데, 회덕에서 공주로 가는 역이다.

보은의 原(元)岩驛은 고려시대 猿岩驛으로 삼승면 원남리에 있었는데,

221) 古道安 부근에 있었다고 하며 시화역과 관련이 있는 원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淸安縣 驛院).

222) 淸州市誌編纂委員會, 1961, 앞 책, 102쪽.

223) 행상인들은 4·9일에 열리는 청안장을 보고나서, 다음날에 열리는 진천장을 보기위해서 이 영로를 많이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1·6일의 문의장, 2·7일의 청주 남석교장을 보고, 3·8일의 오근장을 본 후 이어서 청안장을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이들 보부상들은 일정이 촉박하므로 定期場의 순회 이동 경로는 지형이 험하더라도 지름길을 이용하였다. 보부상들은 주로 지계를 사용하여 물건을 운반하였는데, 작대기에는 겨울의 얼음, 사람, 짐승을 대비하기 위해 끝에 축이 달린 것이 특징이며, 지계를 지고 쉬는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지계도 이에 맞게 개량되었다.

청주에서 斗山·皮盤嶺·懷仁·報恩²²⁴⁾·原岩驛을 거쳐 靑山으로 이어지는 청산로상에 위치하였다²²⁵⁾ 보은에서 원암역까지 30리, 원암역에서 청산까지 20리이다.²²⁶⁾ 청산로에서 가장 험준한 곳은 피반령재라고 불리는 피반령이다. 세조는 세조 10년 2월에 慧覺尊者를 만나기 위해 속리산 福泉寺로 행할 때 청주에서 皮嶺(피반령)을 넘고 회인·보은을 거쳐 복천사에 이르렀는데, 세조 일행은 피반령을 넘으면서 고생을 한 것 같다.²²⁷⁾ 또 보은의 숲林驛은 고려시대의 역으로, 외북면 함림리에 있었는데, 신라의 중요한 산성이었던 숲林山城 아래에 위치하였다. 함림산성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大東輿地圖』에는 보은에서 함림역으로 하여 龜峙·柵峙를 거쳐 華陽洞에 이르고, 화양동에서는 萬東廟·窟岬을 거쳐 괴산군 읍치에 이르며, 또 화양동에서 延豐縣의 읍치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 길은 청주의 竹嶺小路와 화양동에서 만난다. 『輿地圖書』에는 죽령소로는 상당산성까지 15리, 靑川倉까지 60리, 화양동까지 80리라고 하였다.²²⁸⁾ 『大東輿地圖』에는 청주에서 華淸嶺을 넘어 청천창으로 하여 화양동에 이른다고 하였다. 청천로이기도 한 이 길은 上峰재를 넘는데, 청주읍성의 동문(關寅門)에서 龍潭里·明岩里·玄岩里·葛山里를 지난다. 전에도 이 길은 꽤 넓었다. 상당산성으로 가는 사람과 물자는 이 길에서 상당산성의 남문으로 들어간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에도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옥천의 化仁驛은 고려시대의 利仁驛으로, 안내면 인포리에 있었으며 옥천에서 보은으로 가는 역이다. 『大東輿地圖』에는 옥천에서 금강의 化仁津을 건너 화인역, 安邑倉을 거쳐 文峙를 넘어 보은현 읍치에 이른다고 하였다. 또 옥천의 順陽驛은 고려시대의 역으로,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에 있었으며, 옥천에서 茂朱로 가는 역이다. 『輿地圖書』 옥천군지도에는 옥천군 관아에서 남쪽으로 금강의 虎灘津을 건너 陽山倉, 순양역으로 하여 무주로 통한다고 하였다.

224) 청주에서 말구리재, 밀에재, 사흘티(三日峙)를 넘는 보은로도 있었다.

225) 『增補文獻備考』 권24, 輿地考12 道里.

226) 『大東地志』 程里考.

227) 閔德植, 2012, 앞 글, 98쪽.

228) 『輿地圖書』 淸州牧 道路.

3. 驛民

『輿地圖書』에는 울봉도의 역참에서 驛役을 부담하며 驛戶에 편성된 역민은 시화역을 제외하고 1,662명이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역리가 1,098명, 역노가 426명, 역비가 138명이었다. 역별 역민의 평균은 103.8명, 역리의 평균은 68.6명, 역노는 26.6명, 역비는 8.6명이다. 역노비는 전체 역민의 34%를 차지하였다. 울봉역의 역민은 372명으로 찰방역답게 전체의 22%을 차지하고, 증약역은 405명으로 전체의 24%나 차지하여 주목을 끈다. 이는 증약역이 본래 증약도의 찰방역이었고, 또 울봉도 찰방이 울봉역과 함께 증약역에 거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회동역은 19명으로 매우 빈약하다. 울봉역은 역노도 102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역비도 30명으로 22%를 차지하였다. 한편 吏房은 式年마다 形止案色을 차출, 本·屬驛(外驛)의 인구를 推刷하고 형지안을 작성하여, 병조·감영·병영·본역에 보관하였다.

표 3. 울봉도의 역민 현황(『輿地圖書』)

역명	읍명	역촌명	역마			소계	역민			소계	비고
			상등	중등	하등		역리	역노	역비		
장양역	진천현	역리				15	38	66	30	134	
태랑역	"	태랑리				14	40	80	23	143	
울봉역	청주목	울봉리	3	10		13	240	102	30	372	內下吏(43), 知印(16)
쌍수역	"	쌍수리	3	10		13	40	10	7	57	
저산역	"	저산리	1	4	5	10	30	7	3	40	
덕유역	문의현	덕유리	2	5	8	15	25	31	5	61	
증약역	옥천군	증약리	3	6	4	13	355	28	22	405	
가화역	"	가화리	3	6	1	10	39	5		44	
토과역	"	역리	2	5	6	13	51	5		56	
순양역	"	순양리	1	2	7	10	88	3	2	93	

화인역	〃	화인리			9	9	61			61	
회동역	영동현	역리	2	3	5	10		10	9	19	
신흥역	황간현	신흥리				15		24	7	31	
함림역	보은현	함림리	2	3	5	10	30	40		70	
원암역	〃	원암리	1	4	5	10	30	15		45	
정민역	회덕현	정민리	1	4	3	8	31			31	
시화역	청안현										청안현읍 지 결본
계			24	62	58	188	1,098	426	138	1,662	

4. 驛馬

『李耆微栗峰道察訪解由文書』에는 현종 1년 10월 현재 울봉도는 전체 17역참에서 大馬인 상등마가 25필, 騎馬인 중등마가 66필, 卜馬인 하등마가 43필로 三等馬가 모두 134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상등마가 25%, 중등마가 49%, 하등마가 32%를 차지하였다. 각 역당 평균 7.8필로, 10필 이상을 보유한 역은 울봉역·덕유역·장양역·증양역 뿐이었다. 증양역은 13필로 가장 많은 역마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저산역·원암역·화인역·전민역은 상등마를 보유하지 못하였고,229) 원암역은 하등마 7필만 보유하고 있었다. 하여튼 임진왜란을 겪은 후 역로소복책에도 불구하고 울봉도의 역참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다.

229) 역마는 매우 귀하여 그 값이 면포 15~16疋을 밑돌지 않고, 비쌀 적에는 20疋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며(『中宗實錄』 권67, 中宗 25년 2월 丁卯), 민간에 말이 극히 귀하여 조금 잘 달리는 말이라면 값이 극히 높으므로 역리들이 비록 열 사람의 재산을 털다고 하더라도 말 한 마리의 값을 치르기가 부족하고, 비록 그 만한 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中宗實錄』 권84, 中宗 32년 4월 戊午). 중등마와 하등마는 어느 정도 채울 수가 있었으나, 고가인 상등마가 죽게 되면 가산을 다 팔고 일족에 까지 도움을 얻어 겨우 세우게 된다. 그러나 새로 세운 상등마 마저 곧 여위어 죽게 되면 다시 채울 수가 없게 되어 집을 비우고 달아나게 된다고 한다(『中宗實錄』 권25, 中宗 11년 7월 甲午).

표 4. 울봉도의 역마 보유 현황(『李耆徵栗峰道察訪解由文書』)

역명	상등	중등	하등	계
울봉역	3	8		11
쌍수역	2	4	2	8
저산역		3	1	4
덕유역	2	6	4	12
태랑역	1	5	1	7
장양역	3	6	2	11
시화역	2	3	2	7
함림역	1	3	4	8
원암역			7	7
증약역	3	6	4	13
가화역	2	7		9
도과역	2	2	1	5
순양역	1	2	6	9
화인역		2	7	9
회동역	1	1	1	3
신흥역	2	5		7
전민역		3	1	4
계	25	66	43	134

숙종 12년 11월에 울봉도 찰방 呂必容이 숙종에게 울봉도에는 상등마가 30필, 중등마가 67필, 하등마가 75필이고, 본래 정해진 필수는 200필인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조정에서 임시로 감축시켜 정해진 숫자로 복구하지 못하였다고 아뢰었다.²³⁰⁾

『輿地圖書』에는 시화역을 제외하고 16역참의 상등마가 24필, 중등마가 62필, 하등마가 58필로 모두 188필이라고 하였다. 각 역당 8~15필 사이로 평균 11.8필이었다.

『栗峰驛事例』에는 고종 8년에 17역참의 마필은 모두 219필인데, 이 중에서 時立(현재 立役)하는 마필은 상등마 29필, 중등마 74필, 別中等馬 2필, 하등마 78필로 모두 183필이고, 상등마 5필, 중등마 8필, 하등마 21필

230) 『承政院日記』 책319, 肅宗 12년 11월 己丑.

등 34필은 본래 未立이었다고 하였다.²³¹⁾

이들 역마의 馬籍案은 식년마다 兵房이 작성하여 병조, 감영, 병영, 본역에 보관하였다.

한편 『大明律』 郵驛條에는 “出使人員은 탈 수 있는 역마 외에 1馬를 더하는 자는 杖 80이고, 매 1마마다 一等을 더한다. 또 중·하등마를 탈자가 강제로 상등마를 요구하는 자는 杖 70이고, 이로 인하여 역관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자는 일등을 더한다. 상등마를 탈자에게 역관이 고의로 중·하등마를 내어주면 역관을 죄를 주며, 本驛에 상등마가 없으면 논하지 않는다. 만약 역로에서 길을 변경하여(枉道) 馳驛하거나 역을 지나가면서 말을 갈지(換馬) 아니한 자는 杖 60이고, 이로 인하여 역마를 走死시킨 자는 일등을 더하고, 그러나 길을 변경하지 않고 역마를 주사시킨 자는 보상을 하면 죄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에도 “역마를 함부로 탄 자, 사사로이 말을 내어 준 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고, (병조의 馬文보다) 말의 수를 더한 자, 길을 변경한 자, 역을 지나가면서 말을 갈지 아니한 자²³²⁾는 杖 100, 徒 3년에 처한다.”고 하였다.

IV. 맺음말

한양에서 김해로에 있는 울봉역은 고려시대 忠淸州道로 부터 내려오던 오래된 역참이었는데, 세조 8년에 울봉역, 쌍수역, 저산역, 장양역, 태랑역, 시화역, 증악역, 가화역, 도과역, 순양역, 화인역, 전민역, 덕유역, 회동역, 신흥역, 함림역, 원암역 등 17역을 울봉도로 하였다. 충청도 左道의 울봉도에 17역을 둔 체제는 『經國大典』에서 법제화된 이후, 1894년 갑오경장으로 驛站制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울봉도의 본역으로 찰방역으로 역할을 하던 울봉역은 고종 건양 1년(1896) 5월 23일에 「指令公州府李乾夏第一號」로 울봉역의 印信이 나라로 회수되면서 사실상 막을 내렸다.

231) 『湖西邑誌』 淸州 栗峰事例.

232) 換馬를 하지 않고, 너무 빨리 달려서 역참을 넘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역마가 상해서 죽는 일이 흔히 있었다고 한다(『農圃問答』 祛弊癘).

울봉역은 동헌(上房), 공수청, 작청, 館舍, 각종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울봉역이 있던 중리유적은 동북쪽에 자리 잡은 1호 담장지가 1호 연못지와 1·2호 건물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중리유적의 남서쪽에 자리한 2호 담장지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호 연못지와 9호 건물지와는 별개의 권역을 이루고 있다. 1호 담장지와 관련된 동북쪽 건물군이 밀집되어 있는 1구역이 중심구역이고, 2호 담장지와 관련이 있었을 2구역은 부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9호 건물지로 추정되는 1992년까지 남아 있다가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찰방집이 『李耆徵栗峰道察訪解由文書』의 하도 상방 14칸과 일치한다.

건물지와 연못지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주로 기와와 백자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출토유물로 보아 15세기 후반이전에서 19세기까지 오랜 동안 사용되었다. 이들 유구들은 고려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려시대 울봉역의 위치가 문제로 남게 된다.

울봉역의 운영은 공수위진, 마위진, 복호진(復戶結)에서 나오는 收稅가 기본이고, 應役價인 身貢錢, 所屬各驛所納 등으로 충당되었으며, 다른 역 참에서 보이는 역둔도의 지대 수입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족시는 병조·충청감영 등 국가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보충되었다.

울봉역의 역촌은 울봉역에서 인접한 당골, 역대골 등지에 형성되어 있었다. 역촌이 있던 울봉리는 역민의 비율이 88%로 역촌의 성격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이곳 역촌은 驛役을 부담하는 驛戶가 모여 사는 공동체적 성격을 띤 집단취락이었으며, 일반 民戶도 함께 섞여 살았다.

함림역과 함림산성, 저산역과 저산성, 시화역과 뉴성산성과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역참과 성곽과의 관계는 밀접하며, 성곽은 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곽의 조사는 역로와 연결되는 간로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하다. 만약 고려시대의 울봉역도 조선시대의 울봉역 일대에 위치했다고 한다면, 울봉역과 우암산성·상당산성과의 관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필자는 아직 옥천 증약역에서 추풍령까지의 역로를 답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부분적인 서술에 그치고 말았다. 앞으로 울봉도의 역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고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조병료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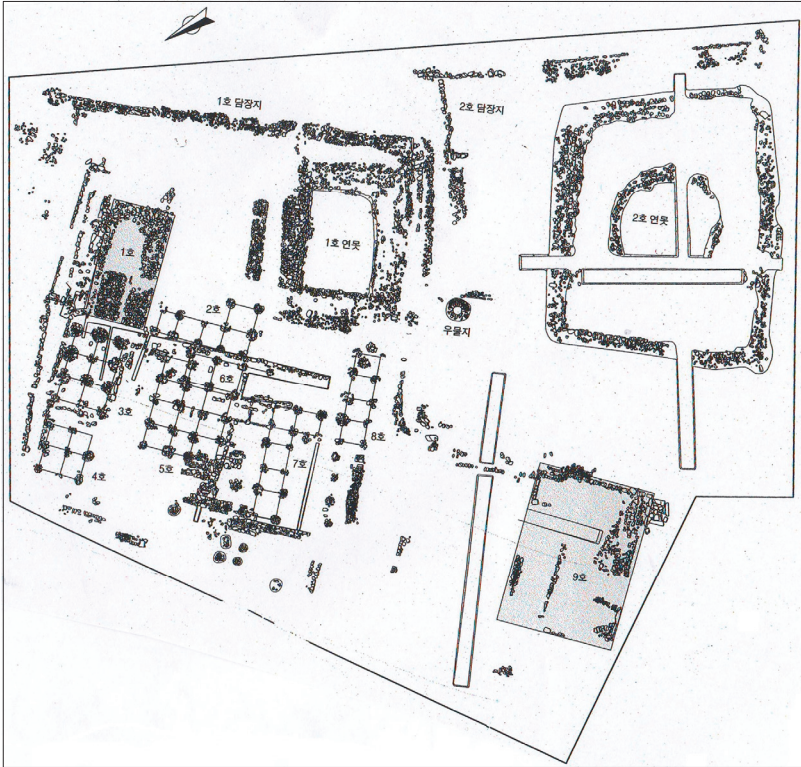


그림 1. 울봉역 건물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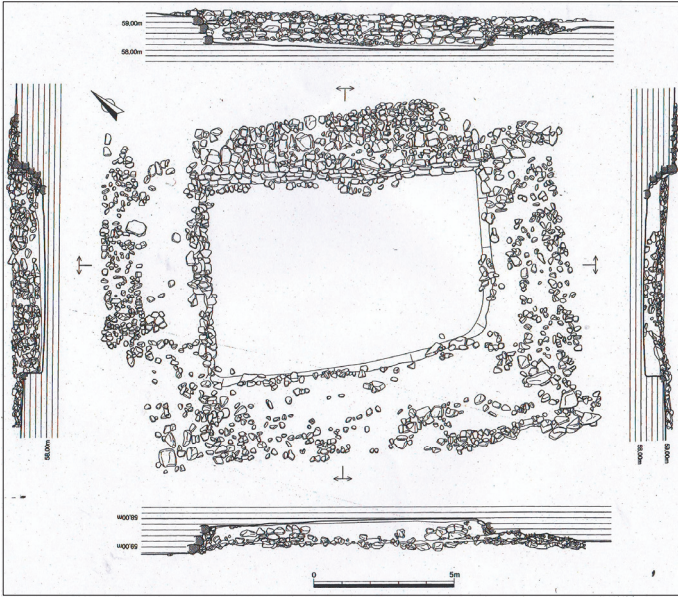


그림 2. 울봉역 1호 연못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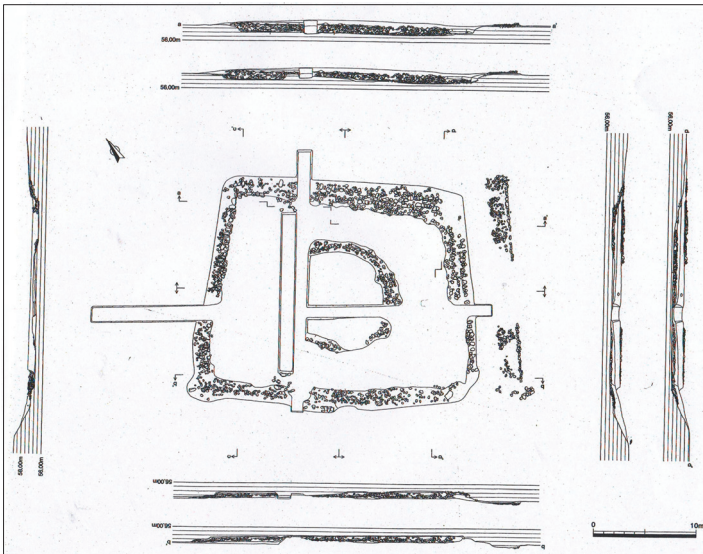


그림 3. 울봉역 2호 연못지



사진 1. 울봉역터 이전 건물 근경



사진 2. 울봉역터 이전 건물 원경



사진 3. 울봉역 찰방집



사진 4. 울봉역터 비석군

[논문접수 : 2017.06.20, 심사시작 : 2017.11.05, 심사완료 : 2017.11.10]

주제어 : 울봉도, 울봉역, 찰방, 공수위전, 마위전, 복호전

【參考文獻】

- 清州市誌編纂委員會, 1961, 『清州誌』.
- 崔在京, 1975, 「朝鮮時代 院에 대하여」, 『嶺南史學』 4(嶺南史學會).
- 崔 虎, 1985, 「朝鮮後期 驛村에 대한 一考察-丹城縣 戶籍大帳을 중심으로-」, 『中央史論』 4(중앙대학교 사학연구회).
- 趙炳魯, 1990, 「朝鮮時代 驛制 研究」(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崔永俊, 1990, 『嶺南大路-韓國古道路의 歷史地理的 研究-』(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裴基憲, 1992, 「朝鮮後期 驛村에 대하여-驛村의 內部構造 및 性格變化와 관련하여-」, 『大丘史學』 43(大丘史學會).
- 裴基憲, 1995, 「朝鮮後期 作廳의 運營과 그 性格」, 『啓明史學』 6(啓明史學會).
- 常山古蹟會·鎭川文化院, 1997, 『鎭川郡 地名誌』.
- 金鍾憲, 1998, 「朝鮮時代 交通建築으로서의 院宇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 연구』 17.
- 閔德植, 1999, 「華城郡 靑園里出土 雍正八年銘五馬牌」, 『年報』 8(忠北大學校 博物館).
- 趙炳魯, 2002, 『韓國驛制史』(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韓柱成, 2002, 「청주지역의 옛 도로망에 관한 一考察」, 『중원문화연구』 6(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閔德植, 2003, 「馬牌의 形態와 機能」, 『馬事博物館誌』(마사박물관).
- 趙炳魯, 2005, 『韓國近世驛制史研究』(國學資料院).
- 趙炳魯, 2005, 「조선시대 충주지역의 교통체제-驛院과 酒幕을 중심으로-」, 『藥城文化』 25.
- 韓柱成, 2005, 「청주지역의 옛 도로망에 관한 一考察」, 『地理學研究』 24(국토지리학회).
- 정기범, 2008, 「조선후기 음성지역 장시 연구」, 『장시와 교통체계』(민속원).
-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清州 栗陽洞遺蹟 I』.
-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清州 栗陽洞遺蹟 II』.
- 中央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住宅公社, 2011, 『清州 栗陽洞遺蹟 III』.

- 閔德植, 「慧覺尊者와 福泉寺」, 2012, 『年報』 21(충북대학교박물관).
- 민덕식, 2013, 「朝鮮時代의 板橋 研究-漢陽都城 研究를 위한 일환으로-」, 『鄉土서울』 83(서울特別市 市史編纂委員會).
- 趙炳魯, 2014, 「조선시대 충청지역 交通路와 驛站운영-淸州 『栗峯道察訪 解由文書』 및 『栗峯驛事例』를 중심으로-」, 『충북의 옛길』(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
- 청주시·호서문화유산연구원, 2015, 『청주 우암산성 I』.
- 강민식, 2015, 「흑백사진에 남은 울봉역」, 『청주문화』 30(청주문화원).
- 조혁연, 2015, 「조선시대 교통로와 영남선비 상경기-충주지역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 23(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Abstract】

The cheongju yulbongyeok of chosun dynasty

Min, Deok-shik

The yulbongyeok located between hanyang and kimhaero that was older station used from chungcheongjudo of goryeo dynasty. There were seventeen yulbongsdo that were yulbongyeok and ssangsuyeok, jeosanyeok, jangyangyeok, taerangyeok, sihwayeok, jeungyangyeok, gahwayeok, topayeok, sunyangyeok, hwainyeok, jengminyeok, deokyuyeok, hoedongyeok, singeuyeok, hanlimyeok, wonamyek in 8th year of king Sejo. The station system that used seventeen station of yulbongsdo of left chungcheongdo was remained form legislation on Kyeongkukdaejeon to abolition of yeokchanje that happened by kapokaehyeok in 1894. The yulbongyeok was made up dongheon and kongsucheong, jakcheongk, official residence, warehouse.

The yulbongyeok located in jungli-remains that located in first wall remains of northeast that consisted of first pond remains and first and second building remains. The region of jungli-remains was different with second pond remains and nineth building remains that was assumed to relate to second wall remains on northeast of jungli-remains. The first district was main region that buildings of northeast relate to first wall remains. The seond district that was related to second wall remains was accessory. The main of first district was fifth building remains that had sidewalk facility and entrance. The main of second district was nineth

building remains. A house of chalbang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burned in 1992 was same hado sangbang fourteen kan of leegujingyoubongdochalbangheayumunseo.

The main excavation of building and pond remains was white porcelain. The yulbongyeok was used from fifteen century to nineteen century for long time. These excavation was not existed in goryeo dynasty. So there is question where was yulbongyeok in goryeo dynasty.

The yulbongyeok was mainly operated by tax for field of station that were gongsuwijeon and mawijeon, bokhojeon. Plus, sokyeksubong and singongjeon was used. If operation money was not enough, the money was surplus by byoungjo and chungcheongkamyong that government institution.

The station village of yulbongyeok was danggol and yeokdaegol beside yulbongyeok. The eighty eight percent of people of yulbonglee that located station village was yeokmin.

Key word : yulbongsdo, yulbongyeok, chalbang, gongsuwijeon, mawijeon, bokhojeon.